금주의 법구–〈아함경〉
타인은 곧 나이고
나는 곧 타인이다.
남에게 상처줘서는 안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9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5월 11일) 2020년 7월 1일 수요일

은닉 성보 환수 '청신호' 켜졌다

대법원, 문화재 은닉 사건에 몰수 명령 확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법 유통된 불교 성보 문화재를 수십 년 동안 은닉해온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내려졌던 유죄 선고와 '몰수' 명령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난당해 제자리에 갈 수 없었던 불교 성보들이 '환지본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는 6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B씨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또한 은닉 불교문화재 39점에 대해 내려진 '몰수' 명령도 확정됐다.

지난 1993년부터 서울 종로에서 사립박물관을 운영한 A씨는 종로구 소재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서 불교문화재 39점을 은닉해왔다. 이들 범행에 꼬리가 잡힌 것은 지난 2016년 B씨가 은닉해오던 불교문화재 11점을 사찰 등에 처분하려다 발각되면서부터다. 당시 그들의 범행은 교계 언론과 일반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으며 은닉 불교문화재 39점은 압류됐다.

이후 B씨의 문화재 알선 혐의는 A씨의 은닉 혐의와 함께 병합돼 형사재판이 진행됐으며, 2018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몰수 명령은 하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은닉 행위 이전에 도난 문화재라는 것을 인지했음을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 측은 항소했으며, A · B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계종 문화부 역시 재판부에 2차례에 걸쳐 "도난 성보가 원래 봉안처로 온전히 돌아가고 문화재의 불법적인 유통 근절을 위해서라도 압류물 몰수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25일 A, B씨에 대한 양형 선고와 함께 '몰수'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몰수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39점의 불교 성보들은 사찰로 돌아가지 못한 채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내 수장고에 임시 보관돼 있었다. A씨는 2017년 3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물건 인도 등 청구 소송' 까지 제기한 상태여서 반환에 대한 위험성도 컸다.

하지만 당시 서울고법은 "유무죄 여부를 가릴 땐 검사의 증명이 필요하지만, 몰수 요건을 살필 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며 몰수 선고를 내렸다.

또한 "불교문화재의 유통은 일반적이지 않다. 수 십년간 사립박물관장을 역임한 문화재 전문가인 A씨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문화재들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던 점도 문제를 삼았다.

고법 前사립박물관장 A씨에
은닉 불교문화재 '몰수' 명령
A씨 항소… 대법 상고 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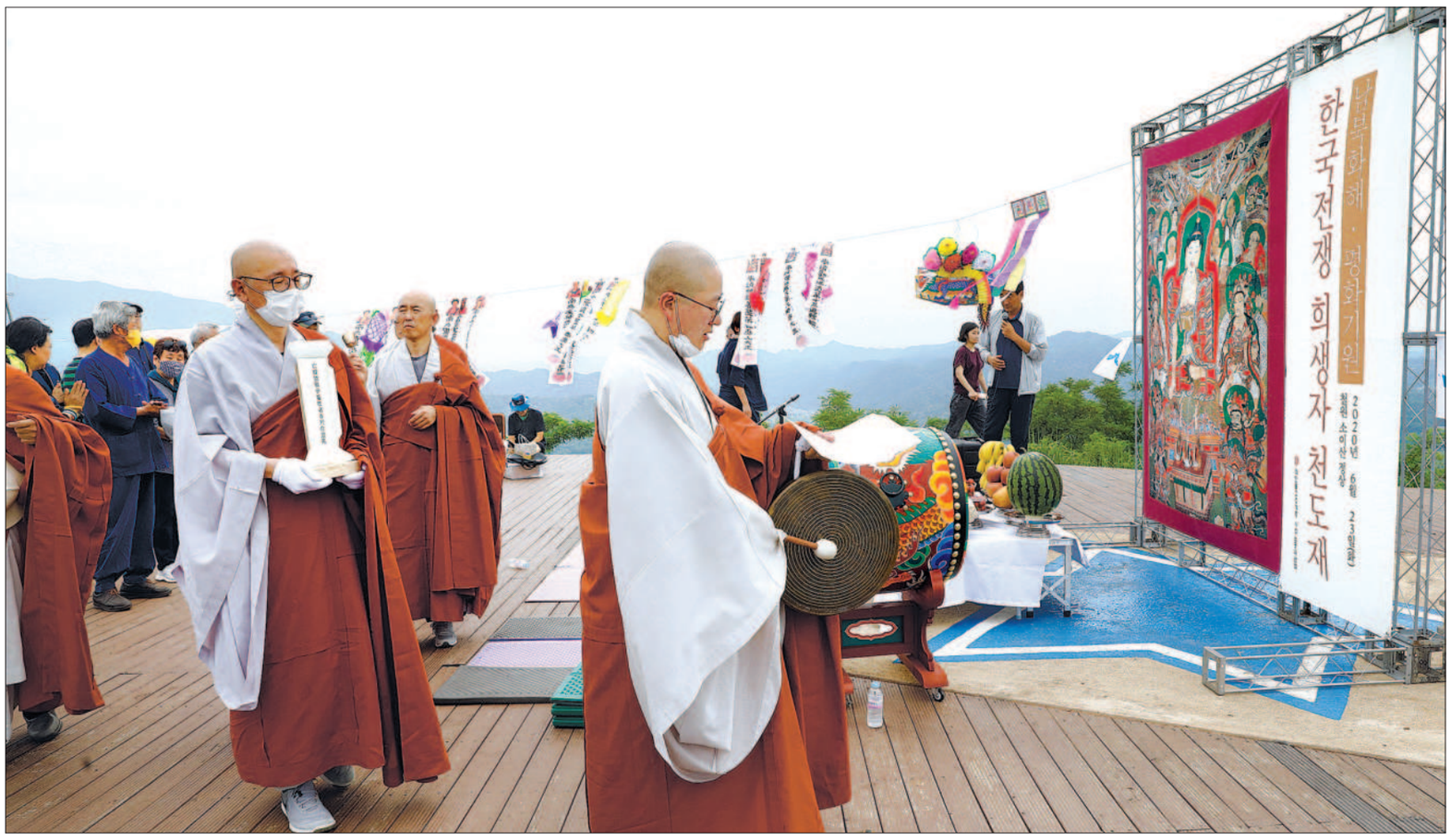
성보 39점 환지본처 가능해
도난문화재 판결 중요 선례

은닉 문화재에 대한 몰수 선고는 극히 드문 사례로 은닉 성보 환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A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불교 성보 유통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 는 2심의 판단이 인정됐다. 문화재 몰수 판결은 불교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라면서 "향후 도난 · 은닉 성보 관련 판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 문화재의 유통이 비상식적인 일임이 법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불법 유통이 근절될 수 있게 됐다. 도난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번 몰수 명령 확정에 대해 피해 사찰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993년 주불 아미타불을 도난당한 전북 장수 팔성사 주지 법륜 스님은 "새벽 5시에 출발해 대법원에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됐다. 지난 25년간 부모를 잃어버린 죄인으로 살았다. 이제 부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니 기쁘다"며 "이번 판결이 선례가 돼 잃어버린 성보들이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6월 23일 강원도 철원 소이산 평화마루 공원 정상에서 '한국전쟁 70년 돌아가신 모든 희생자들을 위한 천도재' 를 봉행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백마고지 울린 처연한 염불 소리

조계종 사노위, 철원 평화공원서 천도재 봉행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해발 362m의 소이산 정상에 괘불이 우뚝 섰다. 드넓은 철원평야와 백마고지에 둘러싸여 남과 북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가운데, 맑고 처연한 염불 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는 6월 23일 소이산 평화마루 공원 정상에서 '한국전쟁 70년 돌아가신 모든 희생자들을 위한 천도재' 를 봉행했다. 소이산과 소이산에서 내려다보이는 백마고지와 철원평야는 70년전 6.25한국전쟁 당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격전지다. 한반도 분단 반세기의 아픔이 고스란히 깃든 셈이다.

천도재는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무참하게 희생된 수많은 영령과 유주무주 고혼을 위로하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동시에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 비추어, 더 이상 민족이 외세에 흔들리지 않고 공고한 평화와 화해의 길을 걸어가길 염원했다.

이날 천도의식은 사노위 부위원장 지몽 스님과 위원 서원 스님을 중심으로, 조계종 사회국장 혜도 스님과 시경 · 월엄 · 도철 · 한수 스님 등 사노위 위원 스님들이 집전했다.

염불과 천도의식, 〈천수경〉 독경 등에 이어 스님들은 '망한국전쟁희생영가' 위패를 들고 〈법성게〉를 봉독하며 영단을 세 번 돌았다. 이어 북측을 바라보며 위패를 소지하고 사방을 향해 절을 하며 유주무주 고혼의 극락왕생과 한반도 평화를 발원했다.

사노위 부위원장 지몽 스님은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공간에 서서, 70년전 희생자들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죽어가야 했는지 되묻고자 한다"며 "오늘 천도재를 통해 과거 이곳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영령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의지와 발원을 모아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철원=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前 원로의장 종산 스님 원적



6월 23일 새벽 입적… 세납 97세 · 법랍 72년

조계종 前 원로의장이자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조실인 혜광당 종산 대종사 〈사진〉가 6월 23일 새벽 5시 원적에 들었다. 세납 97세, 법랍 72년.

1924년 전남에서 태어난 혜광당 종산 대종사는 1947년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절친한 친구가 병고로 세상을 일찍 떠나자 재를 지내기 위해 찾은 강진 만덕선원에서 불연을 맺게 됐다. 당시 스님은 전각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염불 소리에 반해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 는 원력을 세우고 출가했다.

1948년 구례 화엄사에서 도광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52년 화엄불교 전문강원을 졸업했다.

혜광당 종산 대종사는 출가 후 40여 년 동안 오로지 화두일념으로 수행해 온 선승이었다. 해인사, 범어사, 통도사, 천축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41안거를 성만했으며, 범어사 대못수행 일화와 천축사 무문관 6년 결사 참여는 선승으로서 대종사의 면모를 확인시켜준다.

1988년 조계종 제9대 중앙종회 임시의장, 법제분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1990년 직지선원 조실로 추대됐다.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을 역임한 혜광당 종산 대종사는 2004년 4월 원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2012년까지 활동했다. 2012년 구례 화엄사 조실로 추대됐다.

혜광당 종산 대종사의 빈소는 구례 화엄사 화엄원에 마련됐으며, 영결식과 다비식은 6월 27일 화엄사에서 엄수됐다.

〈영결식 차주 상보〉

신성민 기자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철거-보관-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편백운 사태 종식… 새 미래 열겠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취임 1년 소회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태고종 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6월 23일 서울 총무원청사에서 열린 제141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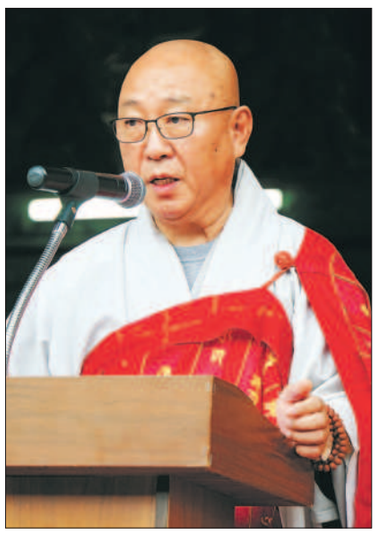
호명 스님은 태고종 역사상 유일하게 총무원 청사가 아닌 길거리에서 당선증을 받은 총무원장이다. 前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의 불신임 불복으로 야기된 종단 혼란이 최악으로 치닫던 지난해 6월 27일 27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길거리에서 총무원장 당선증을 받았고 청사가 아닌 임시 총무원에서 불완전한 종무행정을 시작했다. 무엇하나 쉽지 않은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로부터 1년. 태고종은 완전히 변모했다. 편백운 스님이 무단점거하던 총무원사를 원만히 되찾았으며 종법에 따라 편백운 스님은 멸빈됐고 종무행정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편백운 스님이 제기한 ‘불신임 무효소송’에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사회법적으로도 태고종 현 집행부의 정당성이 확인됐다. 이로써 1여 년간 종단을 뒤흔들었던 최악의 분규는 상처만을 남긴 채 완전히 막을 내렸다.

6월 23일 태고종 제141회 임시중앙종회 개회에 앞서 인사말을 위해 단상에 오른 호명 스님은 편백운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선포했다.

호명 스님은 “편경환 前 총무원장은 불신임에 불복해 혼란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종법 절차에 따라 멸빈된 이후에도 ‘불신임 무효 소송’에서는 승소할 것이라 호언장담하며 종도의 귀를 막고 종단 혼란을 조장했다”며 “그러나 결국 재판에 패소함으로서, 이제 편백운으로부터 시작된 종단 사태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고 선언했다.

이어 스님은 “1년 전 청사 앞 길거리에서 총무원장 당선증을 교부받은 뒤 우리 종단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혼란과 분규를 겪으며 그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당시 종도들로부터 ‘총무원장으로 당선됐으면 빨리 총무원사로 들어가야지 왜 밖에 있냐’는 질책도 많이 받았다”고 회상했다.



제141차 중앙종회서 밝혀
불신임 소송 승소 ‘마무리’
“지난 상처 딛고 일어서자”
수억대 부채 등 숙제 ‘산적’
추락한 대외신뢰 회복 필요

그러나 호명 스님은 “종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태고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종헌종법의 테두리 안에서 종단이 빠른 안정과 종도 화합을 꾀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원칙이 있었다”며 “다행히 이 같은 원칙에 대한 종도들의 원력과 공감이 모인 결과, 지난해 12월 19일 물리적 충돌 없이 총무원사에 돌아올 수 있었고 오늘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27대 총무원 집행부를 지지한 모든 종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지난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강한 원력도 피력했다.

호명 스님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며 “아직도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전임 집행부의 종권 농단으로 발생한 수 억원 상당의 부채 해결은 물론, 종단 귀속된 복지법인이 처분되거나 보덕사 등 공찰이 무단으로 매매되는 등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총무원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부터, 그동안 추락한 대외적 신뢰도를 회복하는 일도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당면 과제다.

이에 호명 스님은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파사현정을 통한 종단 안정과 종도화합이 종단운영의 기본 방침임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임시중앙종회는 △2019년 종무기관 정기감사결과 보고 △종무원 결산보고 △제5대 원로의원 선출 △총무원 부장 · 고시위원장 · 호법위원 · 초심위원 임명보고 및 인준 등을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제5대 원로의원은 지족, 청봉, 서운, 혜명, 도연, 각림, 은수, 영길, 덕화 스님을 비롯한 21명이 선출됐다. 집행부 재경부장에 일공 스님, 문화부장에 원로 스님, 사회부장에 봉진 스님이 임명됐으며 고시위원장에는 재홍 스님이 임명됐다. 또 호법위원에는 만우, 경보, 성우 스님이, 초심위원에는 명원, 수안, 법능 스님에 대한 임명안이 인준됐다.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지난 종단 사태는 종단 제도의 미비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중앙종회는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 종단이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7월 개최

7월 23~27일 열기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던 조계종 중앙종회 제18회 임시회가 7월 말에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6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제11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18회 임시회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스님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던 제218회 임시회를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간의 회기로 개최키로 결의했다. 소집공고는 7월 1일 하기로 했으며, 안건접수는 7월 16일까지, 종책질의는 7월 18일까지 마감하기로 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종단의 종책에 발맞춰 중앙종회 역시 지난 3월에 개최키로 했던 임시회를 무기한 연기했다”면서 “그 이후 종단 현안이 다수 발생했고, 지난해 중앙종무기관의 세입 · 세출 결산도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됐다. 종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회를 열고 이를 논의하려 한다”고 임시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코로나19 극복에 도움되길”

부산 비구니 화엄회 코로나 피해 지원금 쾌척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병원 법당 포교와 봉사를 펼쳐온 부산 비구니 자비봉사 화엄회(회장 상화, 이하 부산 비구니 화엄회)가 코로나19 피해 지원기금을 쾌척했다.

부산 비구니 화엄회는 6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재)아름다운동행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는 화엄회 회장 상화 스님을 대신해 총무 효광 스님과 화엄회 회원인 중앙종회의원 혜도 스님(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이 참석했다.

이에 화엄회 총무 효광 스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잘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원 혜도 스님은 “부산 비구니 화엄회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자비 불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부산 비구니 자비봉사 화엄회는 6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재)아름다운동행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총무원 재무부장 탄하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화엄회 총무 효광 스님, 중앙종회의원 혜도 스님. 사진= 박재완 기자

과도한 규제 해소로 불교문화 발전을

불교 관련 법령들은 지원보다는 규제에 가깝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들이 적지 않다. 이에 불교계는 규제 국가 법령에 대한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조계종은 불교 관련 13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찰 건축 관련 규제 법령 중 대표적인 것이 ‘건축법’이다. 현행 법령에서 전통사찰 건축물은 현대 건축물과 같은 법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은 신축과 증개축에 있어서 관할 구청과 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계사나 감리사를 지정해야 한다.

이에 조계종은 한옥 등 목조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전통사찰 내 목조건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사찰들에게는 과도한 규제가 되는 경우 많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전통사찰들은 존재해왔지만, 신축 불가 · 보전부담금 부과 등 구역 내 다른 주민 시설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 건축행위 시 토지보전부담금 감면과 신축 허용 · 증축 가능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조계종의 주장이다.

21대 국회 이것만은 제개정을

1. 차별금지법
2. 사찰 건축 관련 법령
3. 문화재 도난 관련 법령
4. 사찰 제세 관련 법령

사찰 건축에 현대건축 적용
전통사찰 건축물 제외 요구
‘개발제한법’ 등 개정 필요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서는 전통사찰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용적율 완화 대상에 ‘전통사찰’을 추가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조계종은 전통사찰의 무허가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전통사찰 특정건축물 정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사찰 경내지 내 이미 건축돼 있지만, 건축법 등에 위반돼 철거 명령과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에 제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간한 정책자료집인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에서 “전통사찰의 문화 · 역사 · 불교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 법령들의 중복된 규제로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 · 관리와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전통사찰의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조 도의국사 가르침 선양할 것”

조계종 22일 다례재 봉행

조계종 종조인 도의국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선양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6월 2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종조의 가르침으로 인류가 평안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모든 종도는 조사의 뜻을 마음속 깊이 새겨 조사선의 참면목을 실천해 깨달음을 얻기를 서원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다례재에서 추모사를 낭독하고 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실 보궁불사와 삼천불의 원불이
나투실 공경전 대작불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모시던 사리1과를 쓰리세느대통령께서 정토마을 이사장 능행스님께 직접 이운해주시면서
첫째 : 사리를 모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여 병고로 시달리는 많은 분들을 이롭게 할것
둘째 : 세계평화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것
셋째 : 사리이운을 계기로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의 우호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기원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2019년 법화경 장좌기도를 10년째 용맹정진 중 인도 다람살라 포탈라궁에서 발굴되어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모시고 계셨던 사리2과를 정토마을에 보내셨습니다.
환희용약할일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3과를 모시는 보궁불사가 현재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자의 서원에 따라 원불을 조성하고 보궁불사에 동참하신 공덕주님들의 발원이
꼭 성취할 수 있도록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가피하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정토마을에서는 코로나-19극복을 위한 기도와
대작불사 원만회향을 위한 제5차 법화참회 1000일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사모연안내

1. 제5차 법화삼매참법천일기도 2. 삼천불전 조성불사
3. 사리보궁 조성불사

※모든 법당불사는 형편에 맞게 분납가능하며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불사문의 : 052-255-8588 / 8586 (화주. 평등각) / 010-2926-8500 팩스 : 052-254-2347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정토마을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환지본처

현소장처 LA카운티박물관측, 조계종과 반환 양해각서 체결

한국 전쟁 후 해외반출 추정
종단 환수 사례 중 최대규모
올 7월 중 한국 반환 예정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전쟁 직후 사라졌다가 미국의 박물관에서 발견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왕도'가 원소장처인 신흥사로 돌아온다. 이를 소장하고 있던 LA카운티박물관과 조계종이 성보반환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문화교류에 대한 상호협의를 도출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혼란했던 한국전쟁 전후시기 해외로 반출된 성보가 종단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청,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등 각계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현 소장처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선의가 더해져 환지본처에 성공한 모범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과 LA카운티박물관(관장 Michael Govan, 이하 LACMA)는 6월 16일 LACMA측이 소장 중인 신흥사 성보에 대한 반환을 포함해, 양 기관의 우호협력 및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1954년 신흥사를 떠나 해외로 반출됐던 신흥사 '영산회상도' 1점과 '시왕도' 3점이 66년만에 원소장처인 사찰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국외문화재 환수 형태 중에서도 우수사례로 꼽힌다. 성보 환수를 위한 종단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에 '문화재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공감한 LACMA측의 결단이 더해져 맺은 결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보 환수를 계기로 향후 지속적인 우호협력을 약속함으로써 보다 공고한 문화교류의 토대를 구축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평가다.

종단과 LACMA는 지난 2015년부터 불교문화재 반환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비롯해 양 기관의 교류·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2017년 동화사 염불암 '지장시왕도' 반환이 이뤄졌으며,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2020년인 올해에는 LACMA측이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왕도'를 선의로 종단에 이양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신흥사 '영산회상도'는 해외반출 문화재 중에서도 유독 수난을 겪었다. 한국전쟁 직후 여섯 조각으로 나뉘어져 미국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다. 당시 미군이 찍은 사진기록을 통해 1954년 5월까지 신흥사에 봉안돼 있었으나 1954년 10월 경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54년 5~10월 경 미군에 의해 미국으로 반출됐다는 가설이 합리적 추론으로 인정되는 이유다.

여섯조각으로 찢겨지고 훼손된 '영산회상도'는 개인이 보관하다 1998년 LACMA가 구입했고, 박물관 측이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2010년 진행된 '영산회산도' 복원에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했다. 국내 보존처리 전문가인 박지선 용인대 교수가 정재문화재 보존연구소와 함께 보수를 진행해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한 것. 조계종 문화부는 "LACMA의 한국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보존 노력이 아니었으면 신흥사 '영산회상도'는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측은 해외반출문화재 환수 사례 중에서도 모범적인 형태인 이번 반환이 한국과 미국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2020년 7월 중에 불화를 한국으로 반환하고, 8월에 환수 고불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조계종 문화부는 "이번 신흥사 불화의 반환은 종단의 환수사례 중 가장 큰 규모이자 성보문화재 환수를 위한 종단의 다양한 노력이 이룬 성과"라며 "종단은 앞으로도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에 흩어진 성보문화재의 현황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외의 여러 기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LACMA에 신흥사 '영산회상도' 및 '시왕도'의 보존처리 등을 지원하고 반환을 위해 많은 자문을 아끼지 않은 문화재청과도 국외 환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흥사 '영산회상도'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4년경 반출돼 여섯조각으로 찢긴 채 미국 LA카운티박물관에 소장돼 있던 비운의 성보다. 조계종과 박물관이 환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66년만에 원소장처인 신흥사로 반환될 예정이다.

신흥사 '영산회상도' 환수일지

1954년	6~10월 반출 추정
1998년	美 LACMA, 개인소장자로부터 구매
2007년	한국인 큐레이터가 박물관 수장고서 발견 정우택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 감정 후 원소장처 신흥사 확인
2010년	박지선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등 복원
2011년	복원 후 LACMA 한국관서 특별전시
2015년	조계종·신흥사, LACMA측에 성보 반환요청 및 구입경로 확인메일 등으로 정보교환
2016년	美서 LACMA와 1차 협의 시작으로 수차례 접촉
2019년	2차협의 및 실무회의
2020년	LACMA 이사회통과, 환수 양해각서 체결

'승보공양', 27대 중앙신도회 화두로

주윤식 조계종 제27대 중앙신도회장 선출

"승보공양 활성화를 위해 삼보호지의 역할을 당당히 담당하겠습니다. 신도의 가장 큰 역할인 삼보호지와 조계종지 신수 봉행에 충실하고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출가서 열반까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27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스님들의 노후복지와 수행지원을 위한 승보공양을 화두로 정진한다. 주윤식 신임 중앙신도회장은 6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서 제27대 중앙신도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상하수처리 교반기 제작업체인 우진 대표인 주윤식 신임 중앙신도회장은 1992년 제8교구본사 직지사를 재적사찰로 등록 후 1993년 법상 스님을 전계사로 계를 받았다. 특히 2017년 조계종 제8교구 신도회장으로 취임 후 적극적으로 펼친 승보공양 운동이 이번 중앙신도회장 선출의 원동력이 됐다.



주윤식 제27대 신도회장(사진 오른쪽)이 6월 25일 대의원총회서 선출 직후 임명장을 받고 있다.

주 중앙신도회장은 '출가에서부터 다비까지'를 모토로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1사람이 하루에 100원씩 모금하는 운동을 벌였으며 8개월 만에 후원자 1000명을 모집했다. 이를 통해 2019년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 신도회장은 "무엇보다도 수행과 포교 전념에 물심양면 지원해야 한다. 승보공양 제도의 기틀을 다진 경험으로 이 제도가 종단에 활성화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신도회장은 전임 이기흥 신도회장이 제안해 정착시킨 대국민 나눔문화 캠페인 '행복바라미'의 계승발전과 자원봉사단 '반갑다 연우야' 활동 강화 등을 통한 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아찔한 방화…조계사 야간경보 추진한다

서울 조계사는 6월 24일 "서울시, 종로구청과 논의하여 매일 오후 10시 이후 대웅전 기단부 통행시 경보가 울리는 야간경보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사의 이런 입장은 6월 19일 일어난 대웅전 방화사건으로 기인한 것이다. 조계사는 6월 19일 한밤 중인 오전 2시 대웅전 북측 외벽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을 발견, 이를 긴급 진화하고,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송 모 씨(35)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송 모 씨는 당시 외벽기둥과 신발장 사이에 배낭을 놓고, 이 배낭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 마침 경비를 서던 조계사 직원들이 조기에 발견하여 119 등에 신고 후 15분 만에 소화기로 진화,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 실장은 이어 "오후 10시 이후에 기단부 이상 접근시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 설치를 모색 중이다. 서울시에서도 이번 사태로 사후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대강백 지흥당 백운 스님 원적

6월 19일 담양 용흥사서 원적
범어사·백양사 문도 원로장

범어사, 송광사 등에서 후학들을 지도해왔던 대강백 지흥당 백운 스님<사진>이 6월 19일 오후 6시 40분 전남 담양 용흥사에서 원적했다. 세수 87세. 법납 77세.

백운 스님은 1934년 전남 장성군 불이면에서 태어났다. 만암 대종사의 조카이자 인곡 대선사의 사촌 형안 부친의 영향을 받아 강진 화방사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다가 1944년 석산 스님을 은사로 백양사에서 출가했다.

1947년 광주 서중과 광주사범을 졸업한 후, 만암 대종사와 용성 대종사의 친선약조에 의해 범어사 강사로 있던 석산 스님을 백양사로 돌아오게 하고, 백운 스님은 1952년 범어사 동산 대종사의 상좌로 입실했다.

동산 대종사의 시자로 3년여 간 시봉하며 1952년 범어사 강원에서 수학하고 1955년 통도사 강원에서 수학했다. 이후 1958년 해인사 강원의 전신인 마산대학에 입학해 월운·지관 대종사와 함께 동기동문으로 공부하고 1962년 졸업했다.

1971년부터 1977년까지 화엄사 강주를, 1977년부터 1979년까지 범어사 강주를 역임했다. 1980년 송광사 구산 대종사의 요청으로 강원을 개설하고, 1982년부터 1988년까지 범어사 강주를 맡아 후학을 가르쳤다.



백운 스님 영결식에서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문도 대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백운 스님은 평생 저술에도 진력했다. 한국불교사와 편양언기 선사의 일대기를 소설화 한 〈양치는 성자〉를 비롯해, 서옹 대종사의 뜻을 받들어 〈임제록 연의〉를 편집하기도 했다. 진묵대사, 초의선사, 동산대종사, 완당 김정희, 만암대종사, 성월선사, 혜암종정, 오세동자, 인곡대선사, 부설거사, 연선도인 등을 집필했다.

문도를 대표해 진우 스님은 "참석해주신 대덕큰스님들께 감사드린다. 제자인 제가 잘 모셨더라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함께 하셨을텐데, 참회의 마음과 함께 송구스럽다. 참석해주신 고귀한 뜻을 깊이 새겨 앞으로 큰스님의 뜻에 따라 선과 경전 공부에 정진하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이어 운구는 경내 쌍계루를 지나 다비장으로 운구됐다. 이어 거화와 함께 한줄기 연기와 함께 세연의 끝을 맺었다. (061)392-7502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신성민 기자



통도사 육군 병원 사용 新사료 발견

6월 21일 기자회견 열고 대광명전 낙서들 공개해

한국전쟁 야전병원 추정 자료
치료받은 군인들의 기록 추정
정부에 병원 인정 요청 추진

2019년 발견 용화전 연기문서 '한국전 육군병원 분원' 증거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가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낙서들. 당시 머문 군인들이 남긴 흔적으로 대광명전 벽에서 발견됐다. ①4284년 6월 10일 평양이라고 적힌 글귀 ②이름 및 연도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낙서 ③통도사에 머문 장병이 그린 모자 낙서

통도사가 한국전쟁 중 야전병원으로 사용됐다는 새로운 사료가 발견됐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최근 한국전쟁 당시 '제31육군정양원'의 분원인 야전병원으로 사찰이 이용됐다는 사료를 공개했다.

통도사는 6월 21일 "통도사 대광명전에서 날카로운 도구로 긁은 글귀와 탱크, 트럭 등을 그린 그림 등 당시 이곳에서 치료를 받은 군인들이 남긴 낙서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낙서는 당시 상황과 군인들의 생각을 짐작케 한다. 낙서에는 '가노라 통도사야/잘 있거라 전우들아/정든 통도사를 떠나라고 하려마는/ 세상이 하도 수상하니 갈 수밖에 더 있느냐'는 내용이 담겨 전쟁에 참여해야 했던 군인의 안타까움이 읽힌다. 또 '단기 4284년 5월 29일 도착해 6월 12일 떠나간다' '4284년 평양' 등은 연도에 대한 확실한 증언이자 통도사서 머문 군인들의 여정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 밖에도 가족과 연인을 그리는 내용이 담긴 낙서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에 앞서 2019년 10월 1일 통도사는 용화전(龍華殿) 미륵불소조좌상 복장유물을 공개하며, 복장유물 연기문을 증거로 한국전쟁 당시 육군병원 설치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복장유물 연기문에는 "한국전쟁에서 3000여 부상병을 치료하는 육군병원이 통도사 내 설치됐고 부상병 치료를 위해 스님들이 나섰다. 당시 통도사 사찰과 각 법당, 요사채 및 암자가 무너지고 깨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용화전 미륵불은 영원히 파괴돼 못 볼 지경"이라 적시돼 있다.

통도사는 그해 10월 31일 이 복장유물 연기문의 기록 보존을 국방부 등에 요청했지만, 해당 부처인 국방부를 비롯해 국군의무사령부, 국가기록원, 수도통합병원 등에서 모두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에 2020년 1월 17일 통도사는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 인정'을 위한 공문도 발송했지만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이를 반송했으며, 국군의무사령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보낸 상태다.

이날 통도사는 2월 연합뉴스와 서울신문 보도기사도 자료로 첨부했다. 기사에 따르면 "6.25 전쟁 중 입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고(故) 박모 소위가 69년 만에 전사를 인정받았다"며 "박 소위는 양산 통도사서 치료를 받다가 1951년 4월 15일에 사망했다"고 명시돼 있다.

통도사 측은 "1951년 10월 '이승만이 제31 육군병원 통도사 분원 장병에게 양말을 1600개 선물했다'는 동아일보 보도 내용도 확보했으며,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에 육군병원이 주둔한 사실을 직접 목격한 김진조 병원장(김내과 의원)과의 인터뷰도 증거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통도사는 한국전쟁 당시 있었던 평산마을 주민을 인터뷰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모을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한국전쟁 육군병원 분원 인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통도사 사회과장 정대 스님은 "호국불교의 역할을 다한 통도사의 노력과 정성을 역사 속에 남기고 후대에 전하고자 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도사는 2019년 용화전 복장유물 연기문 공개 후 천도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연기됐다. 통도사는 한국전쟁 육군병원 분원 인정을 받은 후 2021년 6월 천도재를 봉행할 방침이다.

쿵푸 펭수 아니라 '禪武 펭수!'

자이언트 펭TV, 골굴사 체험 1 · 2편 공개

EBS 인기 크리에이터 펭수가 불가(佛家) 비전 무술인 선무도의 달인이자 불제자로 거듭났다. 스님에게 정식으로 '펭달(達)'이라는 법명까지 받았다.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는 6월 19일과 22일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 선무도 체험기인 '속세 떠나려고 머리 밀었습니다', '강해진다는 건…' 편을 잇달아 공개했다. 또한 골굴사에서 촬영한 가수 비의 '깡' 퍼포먼스 커버 영상도 6월 24일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첫 편에서는 '쿵푸펭귄'이 돼 지구를 지키겠다며 경주 골굴사를 찾은 펭수의 이야기가 담겼다. 경주 골굴사는 선무도의 총본산으로 6세기 경 조성된 국내 유일 석굴사원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선무도를 배우기에 앞서 "자기 마음부터 지켜야 한다"는 현웅 법사의 충고에 따라 자신의 탐 · 진 · 치 삼독심을 돌아봤다. 본격적으로 탐 · 진 · 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펭수는 삭발까지 감행하고 일관 스님에게 참선 명상을 배웠다. 마음을 정리한 펭수에게 일관 스님은 '펭달(達)'이라는 법명을 전했다.

두 번째 편에서는 불제자가 된 '펭수펭달'의 본격적인 선무도 수련기가 이어졌다. 펭수는 선무도 특유의 장지르기부터 발차기, 봉술들을 배웠고, 급기야는 펭귄 권법을 창시하기에 이른다. 자신이 창시한 펭귄 권법을 현웅 법사와 수련생들에게 가르쳐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펭수가 '선무 펭수'로 거듭나는 이야기는 6월 3~4일 촬영됐으며, 촬영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펭수에게 선무도를 가르친 현웅 법사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TV를 보지 않고 인터넷도 거의 하지 않아 펭수라는 캐릭터를 아예 몰랐다. 촬영 전 작가 분이 펭수 관련 영상을 보내줬지만 괜한 선입견이 생길까봐 보지 않았다"면서 "막상 함께 촬영하니 너무 귀여웠다. 펭수의 연기가 99% 애드립이라 당황한 면도 있지만, 10살 어린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것 같아 즐거웠다"고 밝혔다.



선무도 체험에 나선 펭수가 삭발하는 모습. 사진=자이언트 펭TV 캡처

선무도 수련 전엔 마음 수행
삭발 후 법명 '펭달' 수지도

골굴사 촬영 내내 화기애애
"10살친구와 놀이하듯 촬영"

이어 "굉장히 더운 날씨임에도 펭수는 정말 열심히 수련했다. 더운 털을 가진 펭수가 열심히 수련하는 모습에 골굴사 대중들도 더욱 열심히 수련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펭수에게 법명 '펭달'을 내린 스님은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이라고도 했다. 현웅 법사는 "영상에는 일관 스님이 법명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법명을 지어서 내린 분은 주지 적운 스님"이라며 "'선종초조 달마 대사처럼 모든 것을 통달하고 막힘없이 즐겁게 살아가라'는 주지 스님의 뜻이 담긴 법명"이라고 설명했다.

좌충우돌 펭수의 선무도 수련기는 유튜브에서도 높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 첫 편인 '속세 떠나려고 머리 밀었습니다'는 6월 24일 기준 63만 회를 넘었고, 두 번째 편 '강해진다는 건'은 공개 1일 만에 29만 회를 상회했다. 신성민 기자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승격 · 지정 확정

문화재청 6월 25일 공고
봉황사 대웅전 보물 지정
고운사 연수전 보물 예고

보물 제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이 국보 제332호로 승격됐다. 안동 봉황사 대웅전은 보물로 지정됐으며, 의성 고운사 연수전은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보물 제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을 국보 제332호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41호 '안동 봉황사 대웅전'을 보물 제2068호로 지정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또한, 경북 영양에 있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70호 '의성 고운사 연수전'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국보 제332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이하 수마노탑)이 있는 정암사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 자장율사(慈藏律師)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받아 귀국한 후, 643년(선덕여왕 12년)에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

문화재청은 "수마노탑은 '산천비보(山川裨補) 사상'과 사리신앙을 배경으로 높은 암벽 위에 조성된 특수한 석탑"이라며 "모전석탑으로 조성된 진신사리 봉안탑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해 국보로 승격될 역사 · 예술 · 학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보물 제2068호 안동 봉황사 대웅전(이하 대웅전)은 삼존불을 봉안한 정면 5칸의 대형 불전이며,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3칸 불전에 맞배집이 유행하던 것에 비하여 돋보이는 형식이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된 '의성 고운사 연수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70호)'은 고운사의 사찰 중심 공간에 인접해 자리하고 있다. 연수전은 1902년 고종의 기로소(耆老所) 입소를 기념하여, 1904년에 세운 기로소 원당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의성 고운사 연수전'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기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보 제332호로 지정된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기도 정성 모아 승보공양으로 회향”

양산 정종사, 지장기도 100일
6월 21일 입재… 9월 2일까지

승보공양 200명 모인 공승회
매월 1만원씩 2천여만원 성금
승가와 소외 이웃 위해 회향

하성미 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종사 공승회 회원들과 신도들이 지장보살 염불수행에 입재했다. 공승회는 정종사가 운영하는 승보공양 후원단체이다. 매달 만원씩 후원금을 모아 선원 및 율원, 강원에 공양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은 오대산 상원사 안거 후 공양을 올린 후 찍은 단체사진

양산 정종사가 100일 지장보살 염불기도를 시작했다. 지장보살 기도에는 승보공양을 수행으로 삼아 보시행을 실천하는 정종사 승보후원단체 ‘공승회’가 참여해 눈길을 끈다.

나눔자비도량 정종사(주지 여해)는 6월 21일 지장보살 염불기도 시작을 알리는 입재식을 경내에서 봉행했다. 회향은 9월 2일이며 총 100일간 기도를 이어 간다. 이날 입재식에는 주지 여해 스님을 비롯해 공승회 회원 50여 명과 신도들이 동참했다.

정종사 주지 여해 스님은 “하루에 각자 만 번씩 지장보살을 부르며 생활 속에 기도가 스며들어 삶이 변화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종사 기도 수행 회향은 하안거 회향일에 맞춰 마무리 된다. 정종사에는 안거 회향일마다 대중공양을 올리며 수행해 온 스님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공승회 회원들이 있다. ‘공승회’는 재가자들이 순수하게 모인 승보공양회로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2014년 하안거부터 활동을 시작한 공승회는 승보 공양에 동참하고 싶어도 개개인 혼자 진행하려니 부담이 커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일반 재가자들을 위해 창립됐다. 매달 정기 후원금 10000원 씩 1년을 모으면 2000여 만원이 된다. 공승회 후원금은 안거마다 통도사 선원, 율원, 강원, 극락암, 호국선원 등 여러 수행처에 정기적으로 전달된다. 주지 여해 스님이 찾는 선방에 안거 회향 시 1000만원씩 대중공양을 올린다.

이밖에 공승회 회원들은 가정 경조사마다 승보공양을 올린다. 이런 후원을 모아 몸이 불편한 스님들에게 치료와 간병비를 지원한다. 후원금 전달 뿐 아니라 공승회 회원들이 직접 사찰을 방문해 아픈 스님을 간호하고 음식공양을 올리기도 한다.

해외에서 수행하고 공부하는 스님들을 위한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공승회는 대만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주지 여해 스님은 “불자가 신행생활하면서 최소 두 가지 준수사항이 있다. 그것은 수계 후 지계를 생활화하여 악업을 차단하는 것이고, 가진 것을 나누는 보시로 선업을 늘리는 것”이라며 “공양을 올릴 곳은 지혜의 길을 가는 승가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다. 선업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광주 불심 중흥 계기… “서구를 불국토로”

광주 서구청 불자회 6월 22일 창립

광주 서구청 불자회(회장 손회숙)가 6월 22일 광주 서구청 2층 대회실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생활불교 실천 직장’ 만들기를 서원했다.

10여 년 전부터 활동이 없었던 서구청 불자회는 지난 5월 처음으로 서구 관내 운천저수지에서 점등식을 봉행한 후 모임을 갖기 시작해 이날 창립법회로 정식 출범을 알렸다.

회원 20여 명으로 다시 창립하는 서구청 불자회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에서 매월 1회 정기법회와 사찰순례, 공무원연합법회, 템플스테이 등을 연중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 지도법사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혜월 스님을 비롯해 서대석 서구청장,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장과 남구, 동구청 불자회장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손회숙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러 사부대중의 긍정의 에너지가 모여 첫



걸음을 떼게 되었다.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동행인으로 사람 냄새나는 가정, 직장, 사회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계 스님은 창립법회를 축하하는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광주불교야 말로 한국불교를 선도하고, 지역민들에게 자비와 희망의 전달할 수 있는 참 종교로 거듭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각 구청의 불자회는 비록 작은 모임이지만, 지역사회에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출발이다”라고 격려했다.

서대석 서구청장는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힘있게 실천하는 불자회가 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교육문화회관 본격 운영 시작

갤러리 ‘리유’, 북카페 ‘담마’ 오픈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건립한 복화문화공간 선운사 교육문화회관(관장 법만)이 갤러리와 북카페를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6월 19일 갤러리 ‘리유’ 오픈 기념으로 열린 특별 전시회는 석상암 보원 스님이 소장한 스님들의 서예작품과 임희진 작가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어 북카페 ‘담마’에서는 오픈 기념식에 이어 소프라노 강수정 등이 출연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갤러리 기념식에서 법만 스님은 “선운사에서는 군민들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자비 속에 살아가기 위해 선운사교육문화회관을 건립했다”며 “갤러리 리유는 예술가들의 열정적인 혼을



전시기획하고 새롭고 다양한 예술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 전시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오는 8월 4일까지 열린다. 이어진 갤러리 바로 옆에 자리한 북카페 ‘담마’에서는 기념식과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기념식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법만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본말사 대중스님, 유기상 고창군수, 최규철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기관장들과 군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관이 많이 미뤄졌지만 나머지 시설들에 대한 개관 준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고창불교회관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 단신

故선진규 원장 유지 담아 인재불사

정토원, 김해시청에 장학금 1000만원 전달

故 선진규 원장의 유지를 따라 인재불사가 실천됐다. 봉화 정토원은 6월 23일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故 선진규 원장 청소년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은 선진규 원장이 임종 전 직접 적은 유언 내용 중 ‘한 없이 능력껏 베풀되 돌아보지 말자’라는 뜻을 이어 정토원이 마련한 것으로 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전달돼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들과 미래 꿈나무들에게 전달된다.

전달식에는 이장명 정토원 신도회 회장, 김영준 고문, 허성곤 김해시장 등이 참여했다.

이장명 신도회 회장은 “선진규 원장님이 임종 한 달 전 청소년 문화사업, 교육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평화통일염원 탑 조성을 추진해달라고 하셨다”



봉화산 정토원은 6월 23일 김해 시청 시장실에서 ‘故 선진규 원장 청소년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며 “결실을 보지 못해서 아쉽지만 원장님의 유지를 이어 이번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토원은 장례 조의금으로 장학금 조성 뿐만 아니라 청소년 포교 및 노인복지, 평화통일염원탑 불사에 회향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수계법회, 7월 11일 부산항컨벤션서

전계대화상에 성우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는 7월 11일 오후 3시 부산항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5층에서 ‘제3회 삼귀의계 · 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매년 마다 법회를 열고 있다.

수계법회 삼사 칠증사는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조계종 전계대화상), 갈마아사리 수불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초대회장), 교수아사리 수진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2대회장)이며 존증아사리는 지현 스님(송광사 율주), 지운 스님(동화사 율주), 경성 스님(해인사 율주), 심산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3대회장), 덕문 스님(통도사 율원장), 만초 스님(전법도량 의장), 원허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으로 계단이 구성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수계는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이다”며 “삼귀의계 · 오계 수계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501-7554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련, 7월 11~12일 전국지도자연수회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신공)은 7월 11~12일 경주 황룡원에서 제68차 전국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포스트 코로나 행복을 보여, ZOOM 온라인 올롸잇’을 주제로 개최된다. 코로나로 인해 법회가 중단되고 어린이들과 소통할 방법을 찾는 지도자들에게 맞춤형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직접 배우는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 사용법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법회 진행 방법 및 명상, 연꽃지 활용법, 놀이 등 다채로운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홍영일 교수(재미와의미연구소 대표)와 어린이불교연구소이다.

연수회는 2차로 나눠 진행되며 참가 신청자는 11일과 12일 양일 중 선택해 접수 신청이 가능하다.

이사장 신공 스님은 “온라인 올롸잇은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 라인 법회 방법’을 배우고 연꽃지와 명상 콘텐츠 등을 활용해 실습해보는 시간”이라며 “온라인 법회에 필요성을 느끼시는 지도자분들에게 유익한 연수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051)864-4569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호라지좃(天門冬)과 회화實의 관한 보고서

이 나라 중생구제와 불국정토를 위해 애쓰시는 스님들과 법사님, 보살님들!
그리고 “한소식” 만을 위해 토굴에서 정진하시는 이판, 사판 스님들께 문안드립니다!
드리는 말씀은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고 정자까지 좋았던 이나라 금수강산에 소리없는 암살자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조용히 침투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황사, 미세먼지, 변종바이러스, 배기가스, 온실가스, 매연, 생활공해, 흡연, 초그을음, 향연기)등이 우리 인체에 살며시 스며들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개인들의 방어전략은 갖춰져 있는가?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방어대책과 척살대책은 무엇인가?
환경이 우리에게 병을 줬다면 반드시 치료되는 명약도 준다! 다만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이다!
하여! 이런 암살자들에게 막강한 타격을 주는 신무기가 개발되었다.
개발자 林大業은 20년간 엄청난 좌절과 실패,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연구개발하여 지구상에서 창궐하는 각종 바이러스, 폐질환, 호흡기 질환에 탁월한 효능 효과를 간직한 “천문동”과 “회화열매”에 함유된 치유물질과 놀라운 “필” 성분을 발견하여 2019年 제품화 하는데 성공하여 철저한 품질검사와 실험을 거쳐 인증을 받은 후 국내최초로 丸을 제조하여 첫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천문동+회화열매의 성분, 효능, 효과는 지면으로 다 설명할 수 없으니 H.P로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 생략하며, 인체 내 호흡기 질환, 폐질환, 기침, 가래, 천식 기관지, 갑상선, 성대보호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확신하며,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희망자 선착순 100명에게 체험확인을 드리고자 10日분 50g을 무료배송해 드릴것이니 직접 주문하시고 전화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시원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제품에 자신이 있으니 그냥 드리는 겁니다. 섭취후 선택과 판단은 그때 하십시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호산헬시코리아 대표 林大業 배상



천문동(天門冬)

호산 헬시코리아 www.hosanhealty.com TEL. 031-912-7112 HP. 010-2255-1358(직)
※고객님의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010-7159-5737

| 현불 논단 |

눈 맞춤으로 소통하자



이화행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인간, 언어 · 비언어적 소통해
대화 · 표정으로 커뮤니케이션
코로나19, '소통 위기' 초래해

몸짓 · 표정 · 억양 등 포함된
비언어 의미 전달 93% 달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단절
거울보며 밝은표정 지어보자
자신과 '눈 맞춤'하며 성찰을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언어와 비언어를 통해서 이뤄지며, 우리의 일상적 대인관계는 물리적 만남을 기본으로 한다. 만나서 말로 대화하고 표정으로 소통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이처럼 물리적 만남 속에서 서로 부대끼며 희노애락을 함께 한다. 이것이 인간 삶의 일상이다.

삶 속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어쩌다 경험하게 되는 루틴한 일상의 파괴는 평상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된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의 물리적 만남을 기본으로 하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일상적 패턴을 파괴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언택트 사회는 언어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신체적 접촉 같은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한다.

우리는 막연히 커뮤니케이션이 언어에 의한 소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짧은 순간의 눈 맞춤이나 표정이 훨씬 더 의미심장 하듯이 말 없음, 즉 비언어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알고 보면 높다. 비언어가 의미전달의 93%를 차지하며, 표현수단으로서의 언어 대 비언어의 비율이 35대 65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되는 비언어의 양이 많고, 또 중요하다는 얘기다.

비언어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인 요소를 제외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몸짓, 표정은 물론이고 옷차림과 현장 분위기, 그리고 말의 강세와 억양 등이 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언어가 정보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반면, 비언어는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비언어는 언어 뒤에 가려진 진실을 보여주는 도구라고도 하다. 사람의 본심이 때로는 말이 아니라 표정과 몸짓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비언어적 소통은 중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고정하고, 미소 지으며 경청하는 얼굴 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시인 에머슨(Emerson)은 "사람의 눈은 그들의 말과 바꿀 만큼 중요하다"고 했다. 눈 맞춤은 관심, 매력, 친밀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설득력, 공신력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심지어 거지가 행인으로부터 돈을 얻으려고 할 때, 구걸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도 눈 맞춤이다. 눈 맞춤이 설득의 성공 열쇠일 수 있는 것이다.

아직 코로나 사태의 종료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개인은 집안에, 사회는 온라인 속에, 그리고 국가들은 국경에 갇혀 있다. 우리야 사정이 다르지만 육지에 접경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 조치는 심각한 현실 문제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물리적 만남을 통한 공존의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인간이 극복해야 할 불편함과 압박감에 다름 아니다. 물리적 접촉이 제한되어 루틴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일상이 깨어진 지금 거울을 보며 밝은 표정 짓기를 연습하고, 거울 속의 자신과 눈 맞춤하기를 통해 내면 들여다보기를 일상화하는 것은 어떨까. 희망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社 說

은닉 성보 몰수 확정 '환영'

불교 성보 문화재를 수십 년 동안 은닉해 온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내려졌던 유죄 선고와 '몰수' 명령이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도난으로 인해 제 자리에 갈 수 없었던 불교 성보들이 '환지본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반가울 뿐이다.

대법원 1부는 6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박물관장 A씨와 아들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양형은 유지됐으며, 은닉한 불교문화재 39점에 대해 내려진 '몰수' 명령도 확정됐다.

떨리는 심정으로 지켜봤을 조계종과 피해사찰 관계자들은 판결 이후 비로소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6년 A씨가 사건 이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1심에서는 '몰수' 선고가 나질 않았다. 그런 이유로 39점의 은닉 성보들은 사찰들로 돌아가지 못하고 불교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2심에서 몰수 명령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이제 39점의 성보들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판결은 "불교문화재의 유통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며 도난 불교문화재에 대한 첫 몰수 명령을 내린 2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불교문화재의 유통이 비상식적인 일임이 법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불법 유통이 근절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도 중요하다.

이제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의 공소시효 연장과 선의취득에 대한 입증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는 본래 자리에 있을 때 빛을 발한다. 이번 판결이 선례가 돼 잃어버린 성보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

한국전쟁 70년, 이젠 반목 없어야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 속에서 불교계 각 단체들이 한반도 평화를 발원하는 법석을 이어가고 있다. 반세기 이상 이어져 온 분단의 아픔을 종식하고 이제는 전쟁과 갈등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상생하고 화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강원도 철원 소이산 정상에 올라 한국전쟁 당시 희생자와 유주무주고혼의 넋을 위로했다. 소이산 정상은 드넓은 철원평야와 백마고지에 둘러싸여 남과 북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철원평야과 백마고지는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던 최대 격전지다. 한국군과 북한군, UN군과 중공군 가릴 것 없이 이념의 프레임 속에서 끝없이 싸우고 죽어갔다. 그렇게 희생된 사망자만 200만명으로 집계된다. 이날 천도의식은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쟁의 아픔과 평화를 향한 염원을 일깨우는 법석이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도 같은 날 '한국전쟁 70년 한반도 전쟁종식 평화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그림이 그려진 패널에 남과 북에서 이어진 평화의 리본을 하나로 묶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평화통일실천발원문'을 낭독하고 "불살생의 계율과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지켜 이 땅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행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다. 동시에 남북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를 담은 6.15선언을 채택한지 꼭 20년째 되는 해다. 반세기 반목과 희생으로 얼룩진 한반도가 이제 더 이상의 상처 없이 평화와 상생으로 꽃피우길 발원해 본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나무아미타불'이란 하직인사

이내 육신 나기전에 그 무엇이 내몸이며
이세상에 태어난뒤 내가 과연 누구런가
장성하여 사람노릇 잠깐동안 나라지만
두 눈 한 번 감은 뒤엔 나는 또한 누구런가
울적엔 기쁘다고 갈적엔 슬프다고 속절없이
인간에와 한바퀴를 돌다가네
애시당초 오잖으면 갈 일마저 없는 것을
기쁜 마음 없는데야 슬픔인들 있을손가


그림 · 최주현

요즘은 순치황제 출가시를 염불하는 일이 잦았다. 이번 달엔 서너 번 장례식장의 입관을 보게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모두 예상하지 못한 임종을 맞이했기에 그 가족들과 지인들의 회한은 깊었다. 입관을 하며 마지막 하직인사를 하는 장소에서 울고있는 그들에게 이 염불을 통해 인생의 무상을 전달하고 싶었다.

고인을 보내는 자리에서 하직인사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하세요. 잘 가세요"라는 인사가 전부이다. 평소에도 하는 말이건만 이 인사가 하직인사일 때는 아주 진한 회한의 무게감을 갖게 된다.

한 보살님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달려왔다. 밥을 한 냄비 짓는 꿈이었는데 제사밥이 연상되면서 그것이 꼭 투병 중에 계신 어머니의 임종을 알려주는 예지몽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보살님은 근래에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내고 49재 중이었기에 더욱 예민했고 불안해 하였다.

예상치 못했던 남편의 임종은 후회스러움의 연속이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뒤라 더욱 회한이 남았다. 납골당에 모셨는데 남편에게 미리 물어보지 않은 것도 걸리고, 그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못한 것도 걸리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것도 마음 아프다며 목놓아 우는 보살님의 손을 잡고 함께 머물렀다. 보살님은 남편에게 그 때 하지 못한 하직인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거사님은 사회 초년생일 때 회사의 대표이자 존경했던 인생 선배의 부고를 늦게 듣고 납골당을 찾아 뒤늦은 하직인사를 한 뒤 절을 찾았다. 고인의 가족들은 유언에 따라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진행한 후에야 지인들에게 부고의 소식을 전했던 것이다. 암투병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전화만 드렸을 뿐 한 번 찾아뵙지 못한 것이 너무 죄스럽다는 말을 반복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런가하면 아직은 하직인사조차 할 수 없는 가족들도 있다.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오빠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심정인 가족들은 그냥 말없는 말로써 인사를 전한다. 일주일마다 재를 지내며 나는 그들을 대신하여 하직인사를 전한다.

슬픔이 터질까봐 참고 있는 가족들의 애씀을 뒤로하고 영가를 향해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 사진 속 영가는 비로소 미소로써 화답하는 듯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삼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제3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수계는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 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삼귀의계·오계 수계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서원합니다.
좋은 인연에 동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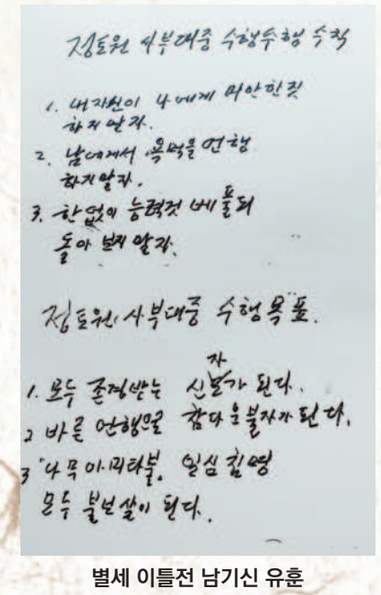
▪ **일 시** : 2020년 7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 4시 30분
▪ **장 소** : 부산항 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5층)
▪ **三師 七證師**
전계대화상 성우 대종사 (대한불교조계종 전계대화상)
갈마아사리 수불 스님(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초대회장)
교수아사리 수진 스님(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2대회장)
존증아사리 지현 스님(송광사 율주)
존증아사리 지운 스님(동화사 율주)
존증아사리 경성 스님(해인사 율주)
존증아사리 심산 스님(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회장)
존증아사리 덕문 스님(통도사 율원장)
존증아사리 만초 스님(전법도량 의장)
존증아사리 원허 스님(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 **수계동참금** : 3만원
▪ **복 장** : 상의(흰색), 하의(편한바지)
▪ **문 의** : 사무국(051-501-7554)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의 부친께서 2020년 6월 8일 16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 : 선진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 정토원장)

마지막 가시는 길,
따뜻한 위로와 명복을 빌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49재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별세 이틀전 남기신 유훈

	일시	장소
초재	6월 14일	봉화산 정토원
2재	6월 21일	
3재	6월 28일	
4재	7월 5일	
5재	7월 12일	
6재	7월 19일	
막재	7월 26일	

상주 : 선기, 선혜명, 선건 배상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장방로 136-200
전화 055)342-2991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4~6/3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2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 / 현천스님	선요가	7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	법정스님 / 김계윤그림	불교신문사
3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	틱낫한 / 이현주	불광출판사	8	수구즉득다라니	불공 금강 / 석법성	운주사
4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9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5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10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본지풍광 설화)	성철스님	장경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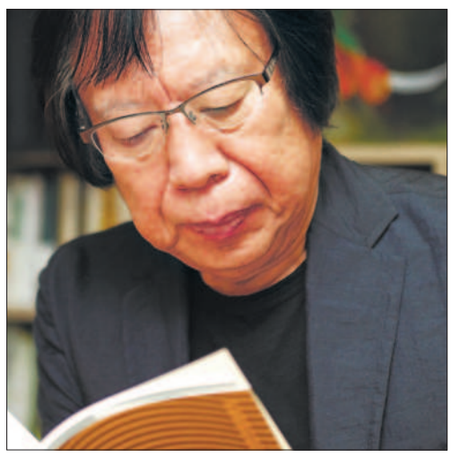
책세상

몰랐던 붓다의 '반쪽'을 본다



붓다 평전

백금남 지음 / 무한 펴냄 / 2만7천원



박재완 기자 waniholl0@hanmail.net

소설가 백금남이 본 붓다
한역의 오역 · 훼손 짚으며
붓다 생애 · 가르침 재정립
"붓다 옆구리 아닌 자궁서,
태자비 고파 · 마노다라" 등
새로운 사실 경전에서 찾아

2600여 년 전에 이 세상을 다녀간 석가모니부처님의 평전이 나왔다. 책은 단순한 전기가 아닌 평전이라는 점과 그 주인공이 석가모니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주목을 끈다. 왜 '평전' 일까. 그리고 이전의 부처님 전기와 무엇이 다른가.

책의 저자는 2014년 대종상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관상〉의 원작소설 〈관상〉과 〈궁합〉, 〈명당〉 등 역학 3부작의 소설가 백금남이다. 최근에는 소설 〈유마〉, 법정 스님의 일생을 조명한 〈바람 불면 다시 오리라〉, 〈천황살해사건〉, 〈십우도〉 등을 출간했다.

이번 〈붓다 평전〉은 2600년이라는 오랜 세월에서 비롯된 '변색' 에 주목한다. 석가모니의 시절은 당대의 역사를 문자로 적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석가모니의 위대한 일생은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설법을 통해 후대의 문자가 겨우겨우 받아 적은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설법이 그 무엇보다 위대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곳에서 여러 문자가 받아 적었던 것이다. 오늘날 여러 나라에 '경전' 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석가모니의 설법과 생애는 과연 얼마나 온전한 그의 흔적일까.

책 〈붓다 평전〉은 우리나라에 전해진 석가모니의 흔적이 변색으로 인한 반쪽짜리라는 사실에서 시작한다. 우리에게도 일찍이 붓다의 여러 경전이 전해졌지만 문제는 중국에서 한문으로 걸러진 경전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오역과 첨삭으로 인해 붓다의 원음과 달라진 문장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같이 붓다의 직언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설로 새겨온 붓다의 법과 생애는 석가모니 원음과 당대의 역사에서 많이 멀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을 통해 밝힌 '대승비불설' 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우리불교 전반을 뒤흔들어야 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이었다. 책은 가야산 대선사가 던진 고백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강가에서 독을 푸는 부모들 곁에서 웃고 있는 소년, 벼랑에서 형제를 밀어 죽인 사내, 그리하여 쇠산지옥에서 수천 년을 고통 받았던 사내, 자신의 업보로 멸망하는 조국을 눈 형형히 뜨고 지켜보았던 사내, 그렇게 모두를 죽이고 밤하늘의 별이 된 사내….

그 사내를 진실되게 그려내자. 고착된 관념에 물든 나를 버리고 반쪽 붓다가 아닌 온전한 인간 붓다를 그려내자. 편파를 놓아버리고 한 인간을 사실대로 그려내자."

저자는 붓다의 완전한 모습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대승불교, 소승불교, 남방불교, 북방불교, 원전 및 많은 경전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석가모니를 본다. 고통에 찬 인간, 중생과 다름없는 인간을 본다. 여자를 사랑할 줄 아는 인간 석가모니, 애욕에 갈등하는 인간 석가모니, 바위에 발등이 깨어져 피 흘리는 인간 석가모니, 어미가 그리워 울고,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울고, 그리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일어서는 인간 석가모니를 보게 된다.

책은 붓다의 전생, 탄생, 태자의 삶, 출가, 성도, 열반에 이르는 과정을 여러 경전을 통해 상세하게 비교하고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붓다를 보게 된다.

붓다는 마야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며, 태자 시절 결혼을 세 번 했다는 것이 대표적인 부분이다.

"싯다르타는 삼시전에 홍실을 향해 걸었다. 요즘 들어 야쇼다라가 있는 청실과 고파가 있는 향실은 찾고 싶지 않았다. 〈중략〉 마노다라는 나이가 있어서인지 어머니처럼 언제나 포근했다."

책은 석가모니가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 태어났다고 적고 있는 기록들을 소개한다. 또한 야쇼다라만을 기억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두 번째 부인 고파와 세 번째 부인 마노다라의 존재를 증명한다. 남전 빠알리 경전과 〈본불행집경〉 등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새로운 내용들은 저자 스스로 혁명적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설' 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책은 이 밖에도 한역을 거치면서 일어난 변색들을 소승경전과 대승경전들을 비교하며 붓다의 전기를 써나간다. 그 마침에서 만나는 붓다는 인간의 눈으로 본 인간 붓다의 모습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붓다의 나머지 반쪽이다.

이 시대 최상의 안심법문은 〈금강경〉



원빈 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 스님 강설 / 이층버스 펴냄 / 1만8천원



박재완 기자

BTN '원빈 스님의 ~ ' 책으로
보살 27단의로 안심법문 소개
감산 주석의 수보리 의심 활용

현재 인류에게 최상의 안심법문은 무엇일까. 〈금강경〉이라고 말하는 책 〈원빈 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이다. 책은 BTN 불교TV에서 방송 중인 '원빈 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의 내용을 옮겨 실었다.

"흔히 사람들은 구하는 바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좋은 차와 더 큰 집을 사고, 멋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사회적으로 번듯한 자리를 차지하고…… 과연 얻음으로써 행복해지려는 이 방식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금강경〉에서는 다툼과 질투 그리고 번뇌를 불러오는 얻음의 전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금강과 같이 견고한 지혜의 완성을 추구하는 〈금강경〉은 부처님이 사위국에서 수보리 등을 위해 설한 경전으로, 경계가 공(空)함을 설하고, 혜(慧)도 또한 공함을 보이며, 보살의 육바라밀도 모두 공함을 밝히고 있다. 곧 공혜(空慧)로써 체(體)를 삼고 무상(無相)으로 종(宗)을 삼아 일체법이 무아임을 설하고 있다.

책은 〈금강경〉의 안심법문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보살의 27단의를 활용하여 뼈대로 삼고 있다. 특히 당나라 감산 대사의 〈금강경〉 주석에서 언급되는 수보리 존자의 의심을 활용한 것인데, 세친 보살의 27단의와는 다르게 감산 대사는 이 의심을 3가지로 더 세분화하고 있다.

감산 대사의 〈금강경〉은 금강심을 인금강이 아닌 과금강으로 표현함으로써 길을 찾는 나그네들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일러주는 돈오(頓悟)를 제공한다. 그리고 세친보살이 언급한 27가지의 의심을 좀더 상세하게 풀어냄으로써 이해하기 쉽게 해석했다. 또한 의심을 끊어 안심에 이르는 단순한 점수(漸修)의 원리를 세우고, 이 원리에서 벗어나는 해설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그 내용이 매우 간결하다.

저자 원빈 스님은 책을 처음 기획할 때 감산 대사의 〈금강경〉을 그대로 복주석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시대 상황에서 설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강경〉 원본에 대한 연구와 인도불교사에 대한 학계의 연구 결과들이 감산 대사 〈금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감산 대사의 과금강적 관점과 수보리 존자의 의심을 끊는 구조를 뼈대로 삼되, 현대의 인도 〈금강경〉에 대한 연구 결과를 포함한 내용을 살로 붙였다. 또한 서두에 제시되는 원문은 한국 불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구마라집본과 소명태자의 32분설을 그대로 활용한다. 현장본이나 범본에만 등장하는 내용들은 중간중간 해설에서 소개한다. 또한 앞에 소개한 등장인물들의 관점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원빈 스님은 세친의 27단의를 읽다가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었다. '수보리 존자는 아라한인데 과연 이런 의문을 일으켰을까?' 원빈 스님은 "제시되는 의문들이 아라한의 지혜 수준과 괴리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이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로 설정되었지만 사실은 기원후 100여 년 경 보살승운동의 수장과 제자들의 대담에 가깝기 때문"이라며 "이 책에서 제공되는 의심은 수보리 존자가 아닌 보살승운동의 수제자 또는 부파불교의 비구들이 보살의 수행 중 일으킬만한 의심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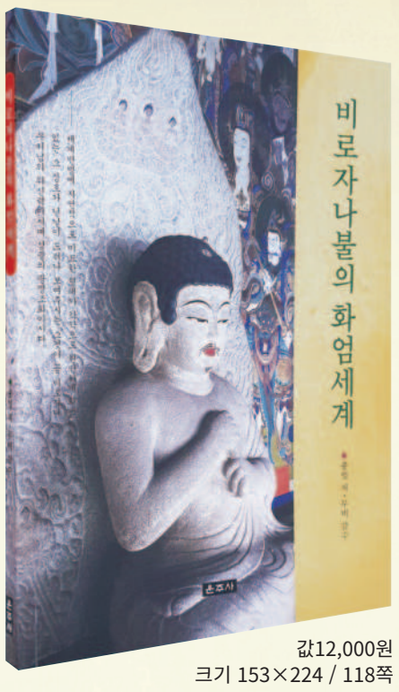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비로자나불의 화엄세계



저자 권종일 스님

비로자나불이란?
불교에서는 수많은 부처님을 이야기한다. 역사상에 등장하였던 세존으로부터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아미타불, 약사불 등등이 그것이다.
그 모든 부처님을 아우르며 그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 되는 **부처님이 곧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이처럼 많은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부처님이므로 그를 인격화하고 불격화(佛格化)하여 설명하려면 구원겁(久遠劫) 이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나간 세상, 말로는 이루 다 설명할수 없는 오랜 겁전에 승음(勝音) 세계가 있다.
그 세계에는 일체공덕산수미승운(一切功德山須彌勝雲)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나라에 대위광 태자가 있어서 부처님을 섬기면서 온갖 불법을 닦아 익혔다.
太子는 여러생을 거듭하면서 여러 부처를 섬기며 수행, 고행, 난행(難行), 공양(供養), 찬탄(讚歎), 체험(體驗), 체득(體得)한 뒤 결국 成佛하게 되니 그가 곧 비로자나부처님이십니다.
법신 비로자나불은 現在 海印三昧 가운데 들어계시고 보현보살님이 비로자나부처님의 원력을 대신 대행하십니다.



값12,000원
크기 153×224 / 118쪽
운주사

구입문의 : 031-510-9077 권종일 스님

日천년고찰, 가상현실로 만난다

진언종 총본산 닌나지 관음당
이전엔 매월 관음재일만 참배
VR 제작으로 상시 공개 가능
실측 데이터에 그래픽 더해져

박영빈 객원기자


다양한 그래픽효과 함께 제작된 닌나지 관음당 VR.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세계문화유산이자 불교예술로 유명한 교토의 천년고찰 닌나지(仁和寺). 중세 불교미술의 보고로 불리는 닌나지 관음당이 VR로 공개된다. 6월 19일 일본의 '산케이 신문', '교토 방송' 등 주요 언론들은 이 특별한 공개를 주요 보도했다.

888년 창건된 닌나지는 진언종 오무로파(御室派)의 총본산이다. 일본 왕실의 원찰이었던 이 곳은 100여 년 전까지는 일본의 왕족이 출가해 주지를 맡는 등 그 위세와 격이 높은 사찰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관음당은 몇 차례의 소실을 겪고, 1640년에 재건된 법당이다. 본존으로는 11면 천수천안관세음보살, 협시로 부동명왕과 항삼세명왕상의 삼존상이 모셔져 있으며, 삼존불의 주변으로 28부중 등의 신장을 모셔 총 33구의 불상이 법당에 봉안돼 있다. 또 관음당 내부 사방에는 33응신도와 관세음보살 구난, 육도윤회도 등의 벽화가 극채색으로 화려하게 그려져 중세 불교미술의 보고로 손에 꼽히고 있다.

이러한 관음당의 예술성은 일본에서는 이미 대중적으로 유명하다. 2년 전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열린 닌나지 특별전에서 1대1로 재현 전시된 관음당의 불단을 관람하기 위해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전시회에 몰렸다. 더욱이 관음당이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수행정진의 공간이란 점도 그 열기에 한몫했다.

이런 관음당의 모습이 이제 VR로 공개된다. 닌나지 측은 "매달 관음재일에만 법당의 문을 열어 대중들에게 먼 모습만을 친견하게 했었다. 그러나 좀 더 가깝게 사람들에게 관음당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VR로 제작하게 됐다"며 VR공개를 시작한 계기를 전했다. 닌나지는 또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관음당의 해체 수리를 위해 각 불상들의 초정밀 데이터를 실측했다. 이를 토대로 VR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약 13분의 길이의 관음당 VR은, 관음당 전체를 360도로 모두 볼 수 있게 제작했으며 33구의 불상들을 각각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의 근접성까지 재현했다. 이 덕분에 각 불상들의 표정들은 물론, 손과 발의 세밀한 선 하나까지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한 시각적 감상뿐만 아니라 VR기기에 붙은 스피커를 통해 보고 있는 불상의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닌나지 측은 "VR설명은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는 참배객들을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의 4개 국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닌나지의 집행장인 요시다 세이유 스님은 "이번 VR공개는 이번 가을에 있을 본격적인 공개행사의 선행적인 체험판이 다음달 31일까지 공개한 후 피드백을 받아 세부적인 수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좀처럼 대중에게 열리지 않는 관음당의 모습을 공개함과 동시에 정확한 자료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VR공개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참배방식, 혹은 관광의 체험으로써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닌나지 측은 이번 공개행사와 동시에 코로나 19의 감염 확산을 위해서 만반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불특정 다수가 하나의 VR기기를 사용하는 만큼 기기의 소독, 체험시의 마스크착용, 체온측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든 행사를 예약제로 진행하여 참가자의 신원 파악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미얀마, 라카인주 인터넷 차단 이유는?

국제 인권단체, 은폐의혹 제기
'제2로힝야 사태 발생' 우려도


미얀마의 라카인주 주민들이 오래 지속되는 분쟁으로 고통 받고 있다. 사진출처=AFP

미얀마 정부가 반군 활동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서부 라카인주(州) 8개 지역과 친주(州) 1개 지역의 인터넷을 차단한지 지난 6월 21일로 1년이 됐다.

라카인주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인종 학살이 자행됐던 곳으로, 최근에는 이곳에서 불교계 소수민족 라카인족(아라칸족)의 자치권 확대를 주장하는 반군 아라쿤과 미얀마 군부와의 충돌이 발발했다. 이에 '제2 로힝야족 사태'를 준비하는 미얀마 정부가 외부에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차단을 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6월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 라카인주 내 151개 난민촌에는 2018년 11월 시작된 미얀마 군부와 라카인족 간 충돌로 피신한 16만여 명이 머물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이들이 난민촌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모의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20일 인터넷을 차단시켰다.

하지만 이같은 인터넷 차단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장기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인권 단체에서는 미얀마 군부가 라카인족에 대한 학살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군이 아닌 민간인의 피해도 크다. 인터넷 단절로 인한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의 생계 위협뿐만 아니라,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유엔 난민기구 방콕 사무소는 지난 19일 "전례 없는 인터넷 정전으로 민간인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미얀마 정부를 향해 라카인주의 인터넷 복원을 요청했다. 유엔 난민기구는 "미얀마 군부의 탄압과 인터넷 차단으로 지역 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인터넷 복원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는 최소 오는 8월 1일까지는 인터넷 차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마저도 치안이 호전돼야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생애 첫 공식음반 발표

뮤지션 쿠닌 부부 제안으로 시작
85세 생일인 7월 6일 발매 예정


달라이라마와 음반작업을 함께한 아브라함 쿠닌과 주넬 쿠닌 부부. 사진출처=AP통신

티베트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오는 7월 6일 생애 첫 음반 '이너 월드(Inner World)'를 발표한다. 지난 6월 20일 일본의 '뉴스위크', '야후재팬 뉴스'는 놀라운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뉴질랜드 출신의 뮤지션 부부 주넬 쿠닌과 아브라함 쿠닌의 제안으로 제작된 이번 앨범은 총 11곡이 수록됐다. 달라이라마의 진언염송과 함께 음악이 곁들어진 곡으로, 이중 3번 트랙인 '자비(Compassion)'는 지난 9일 달라이라마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행 공개됐다.

앨범을 제작한 주넬 쿠닌은 앨범을 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오래전 업무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달라이라마의 육성을 찾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넬은 "그냥 법문녹음은 많았지만, 가볍게 듣기 좋은 음악과 함께한 콘텐츠가 없었다"며 직접 음원을 제작할 결심을 했다고 전했다.

주넬은 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에 달라이라마의 육성으로 음원을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으나 사무국은 거절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주넬은 포기하지 않고 2015년 인도 순례 중 직접 쓴 편지를 달라이라마 비서진을 통해 전달했다.

달라이라마는 주넬의 제안에 대해 "내 인생의 목적은 가능한 한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음악은 의견과 차이를 넘어 인간 본래의 모습에 닿아,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며 기쁘게 제안을 받아들였다.

주넬과 아브라함은 먼저 달라이라마가 가장 즐겨하는 기도문과 진언들을 먼저 녹음하고 지혜, 용기, 치유, 어린이등의 테마로 분류할 것을 논의한 끝에 11곡의 음원으로 만들어 냈다.

주넬은"달라이라마 성하는 음악이 가진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눈을 반짝였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방법이 음악에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달라이라마와 작업하던 당시를 기쁘게 회상했다.

최종 완성까지 5년이 걸렸지만 이 앨범을 위해 수 십 명의 유명뮤지션들이 제작에 참가했다. 특히 그래미상에 노미네이트 됐던 인도의 유명 가수 아누쉬카 샹카가 곡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또 앨범에는 호주 출신의 예술가이자 비구니인 로빈나 컬틴 스님이 직접 그리고 쓴 불교에 대한 소책자와 각 진언에 대한 해석이 동봉되어 발매된다.

공식음원은 오는 달라이라마의 85세 생일인 7월 6일 전 세계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음원의 모든 수익은 달라이라마와 미국의 에모리 대학이 계획한 국제 교육프로그램인 '사회성 · 감성과 윤리 학습프로그램(SEEL)'과 이를 진행하는 마인드&라이프 연구소에 기부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승려, 성소수자 지지 행보 화제

방콕 샤인 와라담모 스님


태국 성소수자 권리를 위해 노력해 온 샤인 와라담모 스님. 사진출처=게이네이션

태국 불교계에서 낙태 합법화와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승려가 화제를 끌고 있다. 샤인 와라담모 스님이다. 태국은 외부적으로 '성소수자들의 천국'으로 유명하지만, 실상은 극심한 차별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소수자들의 커뮤니티 '게이네이션'(Gaynation)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방콕 북부의 한 사찰의 허름한 암자에서 지내는 샤인 스님을 소개했다. 해당 매체는 "불교 지도층 대부분이 낙태를 죄로, 성소수자들을 전생의 나쁜 업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진보적 의견을 피력하는 스님이 있다"며 "혁명적인 일과 다름없다"고 극찬했다.

과거 지역 매체를 통해 "나 역시 30년 전 스님이 될 때만 해도 (낙태와 성소수자 권리 문제에)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수행을 통해 마음이 바뀌었다"고 밝힌 스님은 "낙태와 성소수자 문제는 강요와 차별이라는 사회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과거 불교 문헌에도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가 담겨있지만, 나는 불교 가르침이 사회적 현실에 따라 달리 해석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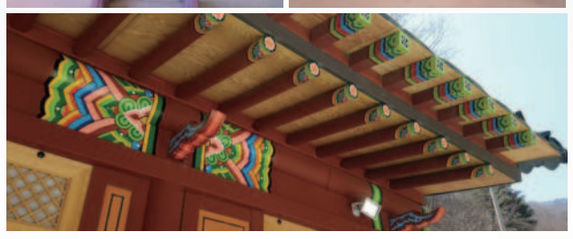
그러면서 스님은 "사람과 종교 중에서 사람이 우선돼야 한다. 종교는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그 방법이 바로 삶과 관습의 변화에 따라 종교적 가르침을 변형해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는 무용지물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국내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 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사당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토목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

‘신과 함께’ 배경엔 ‘한국불교’ 있었네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⑬ 시왕경변상도



해인사에 전해지는 〈시왕경변상판화〉 제5 염라대왕 부분. 1246년 조성됐다. 〈시왕경〉에 대한 도상화 전통은 한국불교가 유일하게 지켜나가고 있다.

지난 2017, 2018년 극장가에서는 이승과 저승, 과거와 현재, 죄와 벌, 인과 연에 관한 영화 ‘신과 함께’가 큰 인기를 얻었었다. 영화에는 저승사자, 염라대왕을 비롯한 지옥의 시왕, 판관, 성주신 등이 등장한다. 영화를 보는 내내 시왕과 관련된 경전인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 이하 〈시왕경〉)〉을 떠올리며, 시왕의 명칭과 각각의 시왕에 속하는 지옥과 재판하는 죄목의 종류를 경전의 내용과 비교하느라 머릿속이 무척이나 부산했던 기억이 있다.

영화 ‘신과 함께’ 1편과 2편 모두 큰 흥행을 한 이유에는 당연히 출연한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겠지만, 관객의 다수가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말귀를 알아들을 무렵이 되면 ‘저승사자가 잡으러 온다’,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에게 심판을 받는다’, ‘악인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서 고통받는다’ 등등의 사후세계와 지옥에 관한 선행학습을 자연스럽게 받게 된다.

또한 사찰에서 대웅전만큼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전각이 명부전(冥府殿)이다. 명부전은 지장보살과 함께 시왕을 모시며, 지장보살의 자비를 빌려 시왕의 인도 아래 저승의 길을 벗어나 좋은 곳에서 태어나게 하고자 재(齋)와 지장제(地藏祭)를 모신다.

이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시왕과 지옥에 관한 개념은 과연 언제부터 있었을까?

불교 경전에서 가장 이른 사례는 〈불설수생경(佛說壽生經)〉이다. 〈불설수생경〉은 당나라 정관13년(639) 현장(玄奘)스님이 중앙아시아에서 취득한 경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내용은 매우 간략하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명부로부터 생명을 이어주는 돈인 수생전(壽生錢)을 빌렸기 때문에 살면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생전을 갚는 방법은 마음을 다해 〈금강경(金剛經)〉과 〈불설수생경〉을 독송한 뒤 〈불설수생경〉을 불살라 바치면 본인은 물론 삼세의 부모와 일가친척까지 구제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이 경전을 독송하면 묵은 원한을 풀어주고, 수명을 늘여 무병장수하게 해주고, 오역의 죄가 소멸 되는 등 그 공덕을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한다.

7세기 경에 성립한 〈불설수생경〉에는 시왕도 염라대왕도 등장하지 않지만, 8세기 후반 만당(晩唐)시기에 성도부 대성자사 사문(成都府 大聖慈寺 沙門) 장천(藏川)이 저술한 〈시왕경〉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시왕경〉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여래께서 반열반에 드시려 할 즈음에 모든 세계 하늘 영과 땅의 귀신 부르셨네. 모임을 인하여 염마왕에게 수기를 주시어 살아생전에 미리 닦는 의식을 전하셨다. 〈중략〉 부처님께서 그 모임의 모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염라천자는 미래세계에 장차 부처가 되어 그 명호를 보현왕여래라 할 것이며, 10가지 명호를 다 갖출 것이다. 그 세계는 엄숙하고 청정하며 온갖 보배로 장엄될 것이다. 그 나라의 이름은 화엄이라 할 것이요, 보살들이 그 나라에 가득 찰 것이다. 그때 염마법왕이 기뻐 뛰면서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한쪽에 물러나 앉았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을 〈염라왕수기사중예수생칠왕생정토경(閻羅王授記四衆預修生七往生淨土經)〉이라 할 것이니 너희는 장차 이 경을 모든 나라에 전하여 유통시켜 온갖 사람들이 이 경의 가름침대로 받들어 실천하게 하라.”

위의 내용에서 보았듯이 먼저 경전의 명칭과 열반에 들기 전 석가여래께서 염라에게 미리 수기를 내리는 사연을 소개한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지옥의 종류와 시왕에 관해 적고 있다. 〈시왕경〉에서 말하는 시왕과 10번의 재판은 다음과 같다.

①첫 번째 칠일 진광왕(秦廣王) - 진광대왕을 만나면 귀문관(鬼門關) 앞에 망자를 세우는데, 이때 귀신들이 모여 살생의 죄를 물어 죄가 있으면 쇠몽둥이로 내려친다.

1천만 관객 영화 ‘신과 함께’
불교의 지옥 풍경 근간에 둬

염라대왕 등 〈시왕경〉 근원
‘시왕경변상판화’ 등 도상화
韓불교만 해당 도상 계승해

②두 번째 칠일 초강왕(初江王) - 초강(初江)가에 사는 초강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하(奈河)를 건너는데 세 곳의 나루터가 있다. 망자의 옷을 벗겨 나뭇가지에 걸어 죄의 무게를 잰 후에 죄가 가벼운 이는 무릎 깊이의 얕은 강물을 건너지만, 악인은 물살이 빠르고 험한 곳으로 건너야 한다. 그리고 선인은 금과 은 칠보로 된 나루터에서 아름다운 다리를 건너간다.

③세 번째 칠일 송제왕(宋帝王) - 송제왕은 사음(邪淫)을 저지른 업을 심판하며, 죄인은 남의 생명과 물건을 빼앗았다고 손과 발을 싹둑 잘라 철판에 놓는다.

④네 번째 칠일 오관왕(五官王) - 오관왕은 업을 재는 저울(業秤)에 업을 재서 죄의 무게에 따라 벌한다.

⑤다섯 번째 칠일 염라왕(閻羅王) - 염라왕은 업경(業鏡)을 갖고 있는데, 죄인을 업경에 비추어 보면 마음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삼세에 저지른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모두 비춘다.

⑥여섯 번째 칠일 변성왕(變成王) - 변성왕이 다스리는 지옥은 철환소(鐵丸所)를 지나야 하는데, 둥근 돌이 서로 굴러다녀 죄인들이 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⑦일곱 번째 칠일 태산왕(泰山王) - 염라왕의 서기이기도 한 태산왕은 인간의 선악을 기록해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 천 등 육도 가운데 어느 곳으로 윤회할지를 결정한다.

⑧100일 뒤 평등왕(平等王)

⑨1년 뒤 도시왕(都市王) - 1년 동안 유족들이 망자를 위해 경전과 불상을 조성하면 죄인이 고통을 덜거나 면할 수 있다.

⑩3년 째 오도전륜대왕(五道轉輪大王) - 죄인이 윤회하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을지에 관해서 최종 심판한다.

〈시왕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자세히 묘사한 대표적인 사례가 고려 1246년 해인사 사간판 〈시왕경변상판화〉이다. 이 그림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화면 오른쪽에서 가로 방향으로 도해되어 있으며,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사천왕 · 합장한 네 보살 그리고 아난과 가섭으로 짐작되는 두 존의 승려가 첫 번째 장면을 구성한다. 화면의 처음에 경전의 명칭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그림의 장면과 장면 사이에 경전의 내용을 잘 새겨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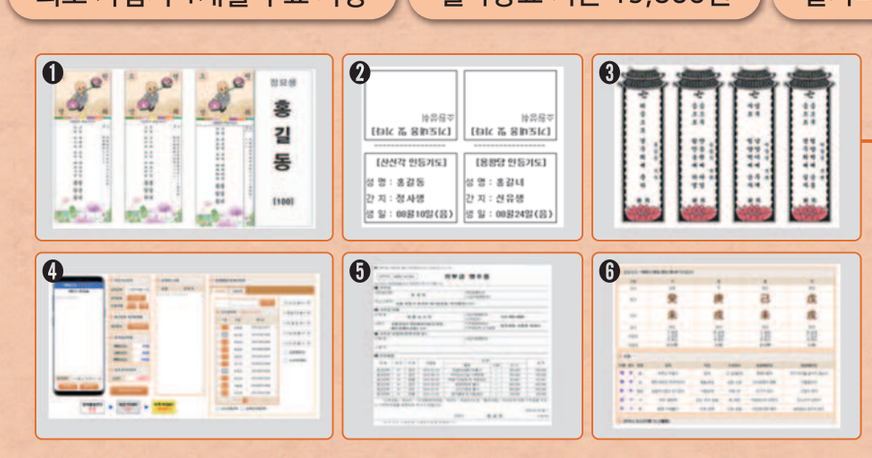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시왕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을 언급하면 돈황 막고굴에서 출토되어 프랑스 파리의 기메미술관과 영국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두 점의 〈시왕경변상도〉를 떠올린다. 고려와 중국 북송의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시왕경〉의 내용을 두루마리 형식의 화면에 그림으로 표현한 화면구성과 시왕들의 복식 등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지만, 고려의 판화는 경전의 내용을 그림과 함께 모두 상세히 적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현재 〈시왕경〉은 〈고려대장경〉이나 〈대정신수대장경〉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그 전거를 명확히 몰랐다는 사실이다. 〈시왕경〉의 전거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다 일본에서 편찬한 〈만속장경(卍續藏經)〉 중 시왕경 조(條)의 첫 머리에 “의조선각본(依朝鮮刻本)”이라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고려 1246년 해인사 사간판 혹은 현존하지 않은 고려의 판본을 통해서, 〈시왕경〉이 현재까지 온전히 전해질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시왕경〉은 중국에서 편찬되었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이 경전을 한국 불교미술에서 그 도상과 경전의 원형을 유일하게 지키고 있다는 뿌듯함과 우리 조상들의 위대함을 감출 수 없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GM since 2015 GMSOFT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개강일시 : 2020년 7월 14일(화)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불교 민주주의’ 지향점 ‘세계국가’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⑬ 불교의 개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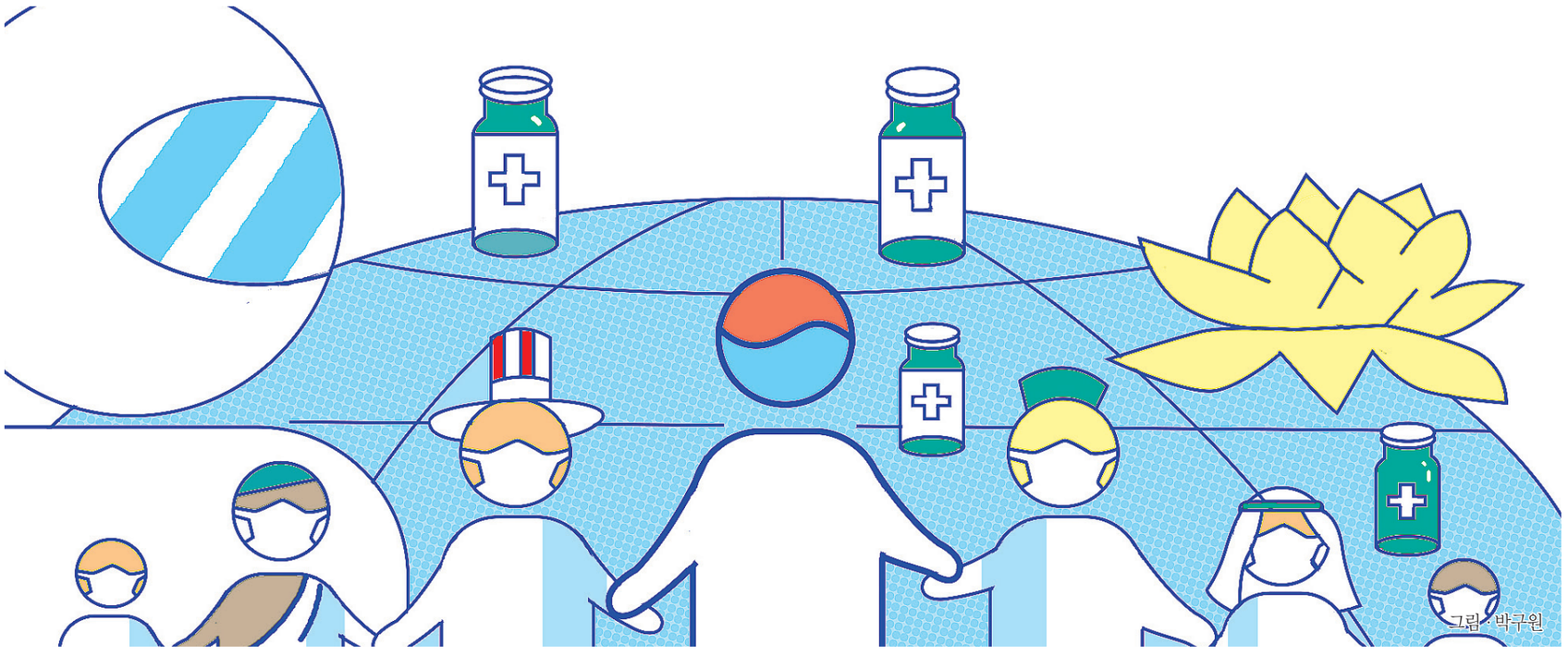


그림: 박구원

로마 제국은 로마라는 작은 도시 국가에서 시작했다. 로마는 주변의 작은 국가를 병합하면서 커졌고 급기야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했다. 로마의 위대함은 제국이라는 결과가 증명한다. 로마의 강점은 오늘날 많은 학자에 의해 분석되었다. 무엇보다도 로마는 개방성과 포용력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는 다른 민족의 우수한 제도와 기술은 유연하게 받아들였다. 필요할 경우 다른 민족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했다.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 제국 시대에는 굉장한 권리였다. 자유롭게 제국을 통행할 수 있는 비자였고 로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예수와 사도 바울이 창시한 종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울의 역할은 지대하다. 신학 성서의 상당 부분은 바울이 쓴 내용이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바울이 기독교를 전파함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는 바울이 소지한 로마 시민권이다. 바울은 자유롭게 로마 제국을 여행하면서 당당하게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기에 기독교 전파에 아주 유리했다.

로마 제국 이후에 알렉산더, 나폴레옹도 제국에 버금가는 국가를 건설했지만 몽고 제국의 범위에는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알렉산더와 나폴레옹의 제국은 알렉산더와 나폴레옹의 사망으로 급속도로 위축되었다. 하지만 몽고는 오래 지속됐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몽고의 지배를 200년 이상이나 받았다. 비록 징기스칸 사후에 몇 개의 큰 나라로 분리되어 통치되었지만 그 분리된 나라 하나 하나가 제국에 버금 갈 정도의 규모였다.

로마 제국과 유사하게 몽고 제국도 개방성과 포용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어떤 인종이든지 능력이 있으면 몽고 제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몽고가 가장 서쪽으로 진격한 곳은 오스트리아 부근이었는데 오스트리아군이 몽고군 첩자를 잡았더니 유럽인이어서 놀랐다고한다. 동부 유럽을 함락시킨 몽고는 오스트리아를 침략하기 위해 동부 유럽인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다른 나라를 병합한 후에 그 나라의 가장 뛰어난 기술을 받아들여 몽고화한 것은 로마와 아주 유사하다. 몽고도 로마처럼 다른 나라의 종교를 탄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다른 나라의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고 다른 나라 사람 중 우수한 사람을 활용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 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점령된 국민은 쉽게 동화될 수 있었다. 로마와 몽고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도 세계국가의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제국이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 받은 민족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불교의 세계에서는 선택 받은 민족이라는 개념은 없다. 인도의 4계급제도는 아리안계 백인이 인도를 점령하면서 만들어진 인종적인 계급이다. 부처님은 계급을 부인하고 누구나 행위에 의해 고귀함과 비천함의 구별이 있다고 하였다. 백인인 아리안 종족이 선택받았다는 브라만교의 교리에 반대한 신흥종교 불교는 출발부터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었다.

기독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불교는 모든 생물에게도 자비를 베풀 것을 말한다. 하물며 지구 상의 수많은 인종에 대해서는 평등한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불교다. 불교는 세계화와 세계국가를 지향한다. 연기가 내포하는 연생연멸(緣生緣滅)과 상의상관(相依相關)이 다른 국가, 다른 인종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기법은 개방성과 포용성을 내포한다.

연기법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인종은 독자적 실체라는 게 없다. 인류학의 연구에 의하면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한 여성의 후손이라고 한다. 그 여성은 인류학에서 ‘루시’로 불리운다. 우리 모두 루시의 후손이다. 피부의 색에 따라 다른 선조가 있었지만 그 선조는 알고 보면 모두 루시의 후손이다. 인류는 탄생 초기에는 한 피부색이었는데 진화의 과정에서 다양한 피부색이 나타난 것이다. 피부색은 완전 검은색과 완전 하얀색 사이에 수많은 단계의 짙고 옅음이 존재한다. 서양 사람을 백인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람의 피부보다 더 검은 백인이 있다. 한국 사람은 노랗다고 말하지만 백인보다 훨씬 하얀 피부도 있다. 눈, 코, 얼굴 윤곽, 머리털 색이 다를 뿐이지 피부가 과연 노랗고 하얀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과거에는 인종을 백인과 흑인으로만 구별했다고 한다. 마르코 폴로도 중국 사람은 백인이라고

열린 사회, 발전 원동력
인종, 종교, 문화 융합해
새 인류 발전 토대 창출

기록하였다. 비록 중국인의 코, 눈, 얼굴 윤곽, 머리털 색은 달라도 피부색은 유럽인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인은 아시아 인종을 황인종이라고 구별해서 분류했다. 어쩌면 우월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시각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루시’라는 한 아프리카 여성의 후예라면 민족과 국가로 구분되는 단위는 모두 자연스럽지 않은 인위적인 구분에 불과하다. 한민족도 여러 종족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한다.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은 체질, 인류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차이가 난다. 중국은 북쪽의 한족과 남쪽의 한족이 생김새가 다르다. 일본어로 ‘여보세요’는 ‘모시 모시’다. 일본어에는 이처럼 반복 음절이 많은데 이는 동남아 언어권에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인은 남쪽에서 올라온 인종과 한반도를 거쳐 북쪽에서 내려온 인종이 섞인 민족이다. 어떤 중국인은 평균 중국인보다 평균 한국인에 더 가깝다. 어떤 일본인은 평균 일본인보다 평균 한국인에 더 가깝다. 내가 미국 유학시절 같이 공부했던 어떤 일본인은 남들이 한국인이냐고 물을 정도로 평균 한국인 얼굴이었다. 그 친구는 자기가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래인’인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정서를 좋아하고 한국 사람과 잘 어울렸다.

우리가 과연 인종과 국가에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오랜 기간 동안 공동 운명체로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해온 인종과 국가는 여전히 현실의 삶에서 중요하지만 이것 또한 알고 보면 인위적인 임시적 결과에 불과하다. 만약 링컨 대통령이 없었다면 미국은 유럽처럼 수많은 작은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을 것이다.

불교교리의 핵심은 선한 행위와 사고는 선한 결과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선한 행위와 사고는 상호적인 것이다. 나 혼자만 선한 행위와 사고를 하면 선한 결과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두가 선한 행위와 사고를 하면 선한 결과의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까울 것이다.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든 사람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국가 간의 경제력, 군사력 경쟁이 심한 현실에서 GDP의 증가, 경제발전, 무역흑자 등을 외면하고 자연과의 공존, 자리이타적 경제행위 등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인접 국가의 GDP가 올라가고 군사력이 증강되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환경보호, 공존적 경쟁, 윤리경영, 이기심과 탐욕의 극복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모두 같이 하면 서로에게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각국이 경제에 관한 무한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사실상 모든 국가들은 지금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불교의 핵심교리가 아무리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국가 간의 경제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에 불과하다. 세계국가로 모든 국가가 편입될 때 불교의 핵심교리가 비로소 현실성을 확보하게 된다.

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사회는 한 국가 내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되더라도 결국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야 한다.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상호의존하고 교류하고 있는 21세기에 한 국가 내에서 불교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연기법은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자연환경의 생물체와 존재들에게 구현되어야 불교의 뜻을 구현할 수 있다. 연기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불교라고 할 수는 없다.

불교가 지향하는 자비는 자신이 속한 직장, 지역, 민족, 국가에게만 적용되는 폐쇄적 자비가 아니다. 불교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적 일하는 방식도 자신이 속한 직장, 지역, 민족, 국가에게만 적용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할 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이중적인 관점은 불교 교리와 어긋난다.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무너졌다. 중국의 잘못으로 간단히 통제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전국민을 고통으로 몰아 넣었다. 비록 우리가 대처를 잘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삶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한 우리만 홀로 편히 살 수는 없다. 최소한 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입국을 통제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마저 효과를 보기 어렵다.

전세계가 협력적으로 백신개발과 정보공유에 노력하는 이유는 전 인류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기적 존재임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기업이 독점하지 말고 실비용으로 모든 인류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인류가 세계화와 세계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면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매우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모두가 이를 절감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나라들이 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중세 시대의 성곽에 갇혀 세계화의 절실한 요구를 거스를 수밖에 없는 현실 또한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부처님의 정신으로 코로나19를 바라본다면 문제는 좀 더 잘 해결될 것이다.

〈고려대 명예교수〉





간화선 확립한 불세출의 선지식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⑬ 대혜종고



중국 절강성 항주 경산사 객당(客堂)에 모셔진 대혜종고의 진영이다. 대체로 두 개의 향판을 세워놓는다. 왼쪽 향판은 승치(僧値, 한국의 입승), 오른쪽은 지객 한자가 쓰여 있다.

대혜종고의 행적

간화선 제창자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는 어려서 유학을 공부했다. 12세에 출가해 17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대혜는 처음 운문종에서 공부한 후 조동종에서 참구하였다. 이후 다시 임제종 황룡파 담당 문준(1061~1115)의 제자가 되었다.

문준이 병으로 입적하기 전에 대혜를 원오극근에게 천거하며 그를 찾아가라고 하였다. 대혜는 스승 문준의 어록을 만들고, 탑명 원고를 청탁하기 위해 만난 무진거사 장상영(1043~1121)과 도반이 되었다(1120년). 대혜는 몇 년간 여러 지역을 유행하며 수행하면서도 극근과 인연이 닿지 않았다. 그러다 1125년 천녕사에서 극근을 처음 만나 가르침을 받고, 42일 만에 깨달음을 얻었다.

대혜가 스승에게서 법을 받고 활동하려던 시기는 북송에서 남송으로 넘어가는 시기다.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침략으로 송은 강남으로 천도해 남송(1127~1187)을 세웠고, 송나라 조정은 금나라와의 주화파(主和派)와 주전파(主戰派)로 나뉘어 대립했다. 당시 주전파에 속해 있던 대혜는 항주(남송의 수도) 경산사(徑山寺)에서 간화선을 보급하며 사대부들과 교류하고 있었다. 이 무렵 조정은 '금과 화해하자'는 주화파로 분위기가 흘러갔다. 1141년 고종의 신임을 받던 재상 진회(1090~1155)는 주전파인 장준 · 한세충 · 악비의 병권을 빼앗고, 악비를 모함해 죽였다. 53세 무렵, 대혜는 반역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승복과 도첩을 박탈당한 뒤 유배되어 총 16년간 귀양살이를 했다.

1155년 사면되어 항주로 돌아온 대혜는 영은사에 머물다가 1157년 장준의 천거로 다시 경산사 주지가 되었다. 이 무렵 조동종의 굉지정각과 선법 논쟁을 하며 '화두선'이라고 하는 간화선을 제창하였다. 4년 후 다시 절강성 사명산의 아육왕사로 거처를 옮겼지만, 조정의 요청으로 다시 경산으로 돌아와 74세로 입적하였다. 저서에는 편지글을 모은 〈서장〉, 스승 극근의 어록을 모은 〈정법안장〉 · 〈대혜어록〉 등이 있다. 대혜는 '보각선사(普覺禪師)'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묘탑 이름은 보광(寶光)이다.

묵조선 · 간화선 논쟁대혜는 당시에 참선하는 수행법을 비판하였는데, 비판 대상이 조동종의 굉지정각(1091~1157)이다. 이 비판한 내용을 살펴보고, 묵조선과 간화선을 비교해보면 간화선의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대혜와 정각이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이를 '묵조와 간화의 대논쟁'이라고 한다. 논쟁의 원인에는 당시 대혜가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대혜는 나라가 어려울 때, 조동종 계열 스님들이 침묵하고 있던 점에 반감을 가지면서 형식적인 선정과 의식에 집중하는 조동종의 선풍을 '(다만 앉아 있는)고목무심(枯木無心)의 묵조사선(默照邪禪)'이라고 비판하였다. 즉 일체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안일함에 안주해 있는 승려들에 대한 비판이다. 한편 조동종의 정각은 "결코 대혜의 간화선이 제일의선(第一義禪)이 아니다"라고 응수하고 나섰다. 그러나 〈인천보감〉에 의하면, 대혜와 정각, 두 스님의 인연은 표면적인 것과는 다르게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 대혜가 15년간의 유배생활을 마칠 무렵, 정각은 조정에 상소를 올려 아육왕산 광리사 주지로 대혜를 추천하였다. 대혜가 유배생활을 마치고, 그해 명주 광요선사에서 공식적인 개당설법을 할 때, 증명법사로 정각이 참석하였다. 또한 정각은 대혜가 유배지에서 사찰로 돌아오면 수많은 대중이 함께 상주할 것을 예상하고, 소임자에게 '한 해 예산을 서둘러 준비하고, 창고의 물품이나 쌀을 비축해 두라'고 분부하였다. 1년이 지나 대혜가 주석하고 있던 도량에서 쌀이 부족하다고 하자, 정각은 비축해 두었던 식량을 대혜에게 보내었다. 대혜는 정각을 찾아가 감사를 하며 말했다. "고불(古佛)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와 같은 역량이 있겠습니까?" 훗날 대혜가 정각에게 다시 말했다. "이제 우리 모두 늙었소. 그대가 부르면 내가 대답하고, 내가 부르면 그대가 대답하다가 누군가 먼저 죽는다면 남아 있는 사람이 장례를 치러주도록 합시다."

오직 '無'자 공안 참구 강조
공안선을 '간화선'으로 정립
의심없는 묵조선 비판 · 논쟁
韓 전승돼 '한국선' 자리매김

몇 년 후 정각이 천동산에서 열반에 들기 전날, 대혜에게 유서를 보냈는데 대혜가 그날 밤 천동산에 도착하여 정각의 장례식을 주관하였다.

대혜의 대표 6가지 공안

①조주(趙州)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
어느 승려가 조주에게 물었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뜰 앞의 잣나무니라."

②조주(趙州)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
어느 승려가 조주에게 물었다.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③동산(東山) 수상행(水上行)
어떤 승려가 운문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님께서 나오신 것입니까?"
"동산이 물위로 간다."

④운문(雲門) 간시궐(乾屎厥)
어느 승려가 운문에게 물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똥 닦는 막대기이다."

⑤동산(洞山) 마삼근(麻三斤)
어느 승려가 동산수초에게 물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마삼근이다."

⑥마조(馬祖) 대여일구흡진서강수즉향여도(待汝一口吸盡西江水卽向汝道)
방거사가 마조에게 물었다.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가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그때를 기다려 말해주리라."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 여섯 화두는 현재까지도 스님들이 수행할 때, 많이 들고 있는 화두이다. 이 가운데 중시하는 것은 두 번째인 무자 화두이다. 오직 '무'자 공안 하나만을 끝까지 참구하여 안신입명처(安身立命處)를 찾도록 강조하였다.

대혜 사상의 특징과 의의

대혜종고에 와서 오직 '무'자 공안 하나만을 끝까지 참구하여 안신입명처(安身立命處)를 찾도록 강조하였다. '간시궐(幹屎厥)' 등 다른 몇 개의 공안들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하나의 공안으로 결판내라는 간화선이 확립된 것은 대혜에 의해서이다. 〈서장〉에 의하면, "바깥쪽을 향하여 달리 의심을 일으키지 말라. '간시궐' 위에서 의심이 부서지면 항하사수 의심이 한꺼번에 부서지리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법연-극근-종고의 3대에 걸쳐 이어오던 공안선이 대혜종고에 의해 간화선으로 확립되었다.

구자무불성은 대혜의 할아버지인 오조 법연에게서 비롯되어 대혜에 의해 강화되었다. 대혜도 화두 가운데 무자 화두를 강조하셨으며, 후대 무문 혜개의 〈무문관〉도 무자화두를 중심으로 한다. "3백 60의 뼈마디의 8만 4천 털구멍으로 전신全身에 이 의단을 일으켜 '무'자를 참구하라"고 하면서 사량분별심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무자화두를 강조하였다. 〈서장〉에서 재가자들에게 편지로 답한 내용이다.

'부추밀에게 답함'

"그대가 만일 산승을 믿을 수 있을진댄 시험삼아 시끄러운 곳을 향하여 구자무불성화(拘子無佛性話)를 볼지언정 깨닫고 깨닫지 못함을 말하지 말지니, 바로 마음이 시끄러울 때를 당하여 아무렇게나 잡아들어서 깨달아보라. 요컨대 고요히 앉을 때엔 다만 한 대 향을 사르고 고요히 앉되, 앉을 때 혼침(昏沈)에 들지 말며 또한 도거(掉擧)하지도 말지니, 혼침과 도거는 선성(先聖)의 꾸짖으신 바니라. 고요히 앉을 때에 이 두 가지 병이 현전함을 깨닫자마자 다만 구자무불성화를 들면 두 가지 병은 애써 물리쳐 보내려 하지 않아도 당장에 고요해지리라."

'여사인 거인에게 답함'

"들어 일으키는 곳에서 알아차리려 하지 말며 또 사량으로 헤아리지 말고 다만 뜻을 붙여 가히 사량치 못하는 곳으로 나아가 사량하면, 마음이 갈 바가 없어서 늙은 쥐가 소뿔 속으로 들어가 문득 거꾸러짐을 보리라. 또 마음이 시끄럽거든 다만 〈구자무불성화〉를 들지니, 부처님 말씀 · 조사의 말씀 · 제방 노숙의 말씀의 천차만별을 '무'자만 뚫으면 한꺼번에 뚫어 지나서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으려니와, 만일 일향으로 사람에게 묻되 부처님 말씀은 어떻고 조사의 말씀은 어떻고 제방 노숙의 말씀은 어떻고 하면 영겁토록 깨달을 때가 없으리라."

화두는 산란과 혼침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요, 공안에 대해 대의단(大疑團)을 일으키는 것이다. 대혜가 정각의 선을 묵조사선이라고 비판한 것은 의심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주된 선이 간화선이다. 고려 보조국사 지눌이 대혜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부터 근자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눌은 세 차례에 걸쳐 깨닫는데, 마지막 세 번째에 이르러 견성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눌 이후, 송광사 16국사를 배출하면서 간화선이 꾸준히 발전하였고, 고려 말기 몽산 덕이의 간화선풍이 풍미를 이루면서 간화선은 곧 한국선으로 자리매김되었다. 특히 대혜의 무자화두 참구법은 지눌의 〈간화결의론〉, 진각 혜심의 〈구자무불성화간병론〉, 서산 휴정의 〈선가귀감〉으로 흘러왔으며, 현 우리나라 선자(禪者)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화두이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차 즐기며 휴식한 공간… 왕 위해 임시 설치



박동춘의
고려 茶 문화, 그 아름다움
⑬ 다점(茶店)과 다정(茶亭)

고려시대 차 문화가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왕실 귀족과 문벌 귀족, 관료 문인, 승려들의 차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려에서는 차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송(宋)에서 차를 수입해 거래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는 서긍(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확인된다.

(고려에서는)중국 납차와 하사품인 용봉단차를 귀하게 여긴다. (송 황제)하사품 이외에도 상인들이 가져다 판다. 그러므로 근래에는 차 마시기를 좋아하여 더욱더 찻그릇을 만든다(惟貴中國臘茶幷龍鳳賜團 自錫賚之外 商賈亦通販 故 邇來頗喜飮茶 益治茶具)

앞글에서 서긍이 말한 납차(臘茶, 고급 단차)와 송 황제가 하사한 용봉단차는 황실용 고급차다. 정위(丁謂)가 대용봉단(大龍鳳團)을 만든 이후 채양(蔡襄)에 의해 더욱 정밀해진 소용봉단(小龍鳳團)을 생산, 황실에 공납했던 차인데, 이를 고려 왕실에 하사했다. 서긍이 고려를 방문했던 12세기에는 송 휘종의 기호에 따라 백차를 생산 황실에 받쳤다. 이 무렵 고려에서는 11세기부터 뇌원차(腦原茶)가 생산되어 국가에 공이 있는 신하에게 하사되었다. 그러므로 서긍이 고려에 사신으로 왔을 당시에 고려는 고려인의 기호와 풍토에 알맞은 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완전하게 갖춘 시기였다. 한편 〈고려사〉에는 사원에서는 왕을 위한 다정(茶亭)을 설치하여 사치스러운 다회(茶會)가 열렸던 사실이 의종 13년(1159) 기사에서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3월 을해(乙亥)일 왕이 현화사에 갔다. 이날 동쪽과 서쪽 양원의 스님들이 각각 다정을 차려 놓고 왕을 청했는데, 더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하려고 서로 다투었다.(三月乙亥 幸玄化寺 東西兩院僧 各設茶亭迎駕 競尙華侈)

윗글은 의종 13년(1159)의 기록이다. 이 해 3월 의종을 위해 현화사 승려들이 다정을 설치하고 다회를 열면서 왕을 위한 다정을 임시로 설치한 것이다. 당시 왕이 방문했던 현화사는 법상종 사찰이다. 원래 법상종은 석충(釋忠)이 진표 계통의 법상종을 계승하여 고려에 소개하였는데, 고려 초기 법상종은 화엄종보다 활동이 미미했다. 그러나 목종(穆宗, 재위기간 998~1009)이 자신의 원찰인 숭교사(崇敎寺)를 창건한 후, 법상종의 교세가 도드라졌으며, 현종(재위기간 1009~1031)이 즉위한 후 법상종의 교세는 더욱 확대되어 화엄종과 양립하는 형세를 이룬다.

특히 문벌귀족 이자연의 아들 소현(韶顯)이 지공국사 해린(海麟 984~1067)에게 출가하였고, 문종의 다섯째 아들이 소현에게 출가함에 따라 현화사를 중심으로 법상종 승려들의 활동이 더욱더 확대된다. 따라서 의종(재위기간 1146~1170)을 위해 현화사 동서 양원의 승려들이 다정을 설치한 후 화려하고 사치한 다회를 준비한 것은 현화사가 교학 중심의 귀족적 성향을 보인 종파였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시기의 다정의 규모를 드러낸 자료로는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 〈관사(館舍), 향림정(香林亭)〉 이 있다.



香林亭
香林亭在詔書殿之北自樂賓亭後有路登山去館可百步當半山之脊而太上御名之其制四面施欄楯可以據坐偃松怪石女蘿葛蔓互相映帶風至蕭然不覺有暑氣使副暇日每與上節官屬烹茶抨碁於其上笑談終日所以快心目而却炎蒸也

安
詔書于殿俟王卜吉日受詔其日率三節官拜于庭都轄提轄對捧上節前導出館置采輿中使副以次從行

清風閣
清風閣在館廳之東都轄提轄位之南其制五間下不施柱唯以拱斗架疊而成不張幄幕然而刻鏤繪飾丹雘華侈冠於他處唯以貯所錫禮物崇觀中揭名凉風今易此名耳

〈선화봉사고려도경〉에 나타난 향림정에 관한 기록. 고려시대 설치전 다정의 면모를 알 수 있다.

향림정은 차를 마시며 여가를 즐긴 공간이지만 현화사의 다정과는 그 결이 다르다. 그렇지만 향림정은 고려 시대 관사에 설치된 다정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향림정은 조서전 북쪽에 있다. 낙빈정 뒷산으로 가는 길로 올라가면 관사에서 100보 가량 떨어진 산 중턱에 세워져 있다(…)8면에 난간이 있어 기대어 앉을 수 있다. 누운 소나무와 괴석에 이끼와 칡덩굴이 어우러져 있는데, 바람이 불면 서늘하여 더위를 느낄 수 없다. 정사와 부사는 여유가 있는 날, 언제나 (향림정에서) 상절의 관속들과 차를 마시고 바둑을 두며 종일 담소를 나눈다. 이는 마음과 눈을 유쾌하게 하고 무더위를 물리치는 방편이었다.(香林亭在詔書殿之北 自樂賓亭後有路登山 去館可百步當半山之背而之…中略…八面施欄楯可以據坐 偃松怪石女蘿葛蔓相互映帶 風至蕭然不覺有暑氣 使副暇日 每與上節官屬烹茶抨碁於其上 笑談終日 所以快心目而却炎蒸也)



강릉 선교장 활래정은 대표적인 다정이다.

왕을 위해 화려한 다정 설치 하기도
〈고려사〉에 임시설치 기록도 남아
향림정, 사신들이 차 즐기던 공간
차를 팔던 '다점', 휴식처로도 활용

알려진 바와 같이 서긍이 고려에 사신으로 온 해는 선화 5년(1123)이다. 그가 언급한 향림정은 소나무와 괴석을 잘 안배한 다정(茶亭)으로, 산 중턱에 있었기 때문에 풍광이 아름답고 서늘하여 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괘적한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사신들이 차를 즐기고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누며 심신을 휴식하던 장소였다. 그러므로 고려 시대 다정은 풍광을 즐기며 차를 즐기던 복합 공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려 시대의 다점(茶店)은 차를 팔던 장소요, 휴식의 공간이었다는 사실은 〈고려사절요〉나 임춘(林椿 · 1148~1186)의 〈이유의가 다점에서 낮잠을 자다(李郎中茶店晝睡)〉에서 확인된다. 〈고려사절요〉 제2권 〈목종선양대왕〉 편 기사에 드러난 다점은 다음과 같다.

가을 7월에 교하기를, "요사이 시중 한언공(韓彦恭)의 상소를 보니, 그 소에 '지금 선조(先朝)를 이어 돈을 사용하고 추포(麤布)의 사용을 금지해 시속을 놀라게 하여, 나라의 이익은 되지 못하고 한갓 백성들의 원망만 일으키게 됩니다.' 라고 하였다. 다점(茶店) · 주점(酒店) 등 여러 상점에서 물건을 매매할 때는 그전대로 돈을 사용하고, 그 외에 백성들이 사사로이 물건을 매매할 때는 그 지방의 편의에 따라 하도록 맡겨 두도록 한다." 하였다.(秋七月 敎曰近覽侍中韓彦恭上疏 言今繼先朝而使錢 禁用麤布 以駭俗 未遂邦家之利益 徒興民庶之怨嗟 其茶酒諸店 交易依前使錢外百姓等 私相交易 任用土宜)

윗글은 목공(穆宗 · 재위기간 998~1009)때인 임인 5년(1002) 가을 7월에 내린 교서의 일부 내용이다. 물류를 유통할 때 돈을 사용하고 추포(麤布, 거친 베) 사용을 중지시켜 달라는 요청에 따른 조치이다. 그런데 "다점(茶店) · 주점(酒店) 등 여러 상점에서 물건을 매매할 때는 그전대로 돈을 사용" 하라는 조서 내용으로 보아 다점(茶店)은 차를 매매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점이란 차를 파는 상가이기도 하지만 때론 차를 마시며 휴식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임춘의 〈이유의가 다점에서 낮잠을 자다(李郎中茶店晝睡)〉는 다점이 휴식의 공간임을 극명하게 드러냈으니 그 내용은 살펴보자.

나른한 몸 평상에 누워 문득 형체를 잊었더니(頹然臥榻便忘形) 한낮 베개 위로 바람 불자 절로 잠이 깨누나(午枕風來睡自醒) 꿈속에서도 이 몸은 머물 곳이 없었어라(夢裏此身無處着) 하늘과 땅이란 온통 하나의 쉬어가는 역이런가(乾坤都是一長亭)

빈 다락에서 꿈을 깨보니 막 해가 저무는데(虛樓夢罷正高春) 흐릿한 눈으로 먼 산봉우리를 바라보누나(兩眼空濛看遠峯) 누가 알리, 은거한 사람의 한가한 멋을(誰識幽人閑氣味) 한바탕 봄잠이 천종(千鍾) 봉록과 맞먹으리니(一軒春睡敵千鍾)

윗글은 임춘의 〈서하집(西河集)〉에 수록된 〈이유의가 다점에서 낮잠을 자다(李郎中茶店晝睡)〉 2 수인데, 〈동문선(東文選)〉에는 〈다점에서 낮잠을 자다(茶店晝睡)〉라고 하였다. 아마 이유의는 임춘과 교유했던 인사로 낭중 벼슬을 지냈던 인물이라 짐작되는데, 그의 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점(茶店)은 낮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가 "나른한 몸 평상에 누워 형체를 잊었다"고 했던 건 그런 연유에서다. 그러므로 다점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덜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은거한 사람의 한가한 멋을 만끽할 장소였던 셈이다. 당시 다점에서 술과 차를 함께 즐겼는지는 자세하지 않더라도 주점(酒店)이 별도로 언급된 사례를 보아 차와 술은 분리하여 팔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려 시대 다점이나 다방도 다소 변질되었겠지만 이를 규명할 자료가 드물기 때문에 현재 발굴된 사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방은 약과 차를 함께 총괄했던 관청이었고 다점은 차를 사고파는 상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었다.

비록 후대의 기록이긴 해도 황호(1604~1656)의 〈동사록(東槎錄)〉에서는 다점의 형태가 변질된 사례도 확인되는데, 이는 그가 일본으로 사신을 갔을 때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사행일기에서다.

'초경(初更)에 평방(平方)에 다다르니, 평방은 곧 하내(河內)의 소속인데, 관백이 왕래할 때 차 마시는 곳이었다…중략… 평방의 옛 이름은 다점(茶店)이다. 집집마다 강 언덕에 누각을 세웠으니, 이른바 청루대제(靑樓大堤)다. 창가(娼家)의 젊은 여자들이 두셋씩 떼를 지어 누각 위에 서서 부채로 사람을 불러 차 마시기를 청한다.(初更時到平方。平方卽河內所屬。而關白往來時茶屋也。中略…平方舊名茶店。家家起樓於江岸。所謂靑樓大堤也。娼家少婦。二三爲羣。立於樓上。以扇招呼。請入進茶)'

윗글은 17세기 일본의 다점을 언급한 것인데, 고려 시대 다점과는 다르게 유곽 형태로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일본도 차 문화 도입 초기에는 고려와 비슷하게 다점을 운영했겠지만 점차 그 형태가 변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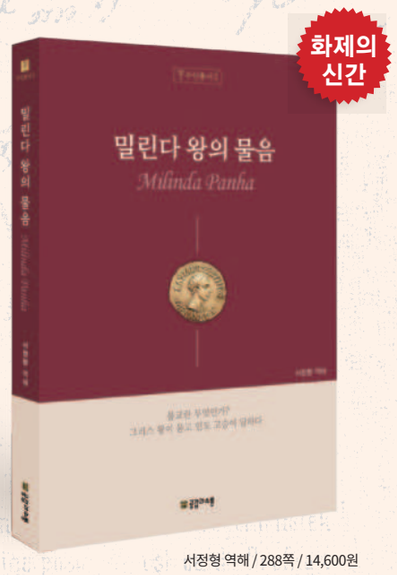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불교란 무엇인가?
그리스 왕이 묻고 인도 고승이 답하다!"



화제의 신간

밀린다 왕의 물음

알렉산더의 후예인 그리스 왕 밀린다와
불교에 정통한 인도 고승 나가세나의 주옥 같은 대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유려한 우리말로 풀어쓴
〈밀린다팡하〉역해서!

이 책은 불교에 회의적인 서구인들이 내게 묻는 대부분의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밀린다 왕의 물음〉이 인도 산문의 위대한 걸작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문학적 견지에서도 어느 나라의 어떤 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서정형 역해 / 288쪽 / 14,600원

서정형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20여 년 불교와 철학개론을 강의했고,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나가세나

밀린다 왕 : 사람의 지혜는 어디에 머뭅니까?
나가세나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밀린다 왕 : 그렇다면 지혜라는 건 없군요.
나가세나 : 바람은 어디에 머뭅니까?
밀린다 왕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나가세나 : 그럼 바람은 없습니까?

공감과소통 전화 031-942-9472

"각자의 眞我를 찾아야"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㉕ 알 수 없는 비밀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 이름이나 글귀에 집착해서 범부니 성인이니 하는 이름의 장애를 받기 때문에 도의 눈이 가려져서 분명히 알지를 못하고 만다. 12가지로 분류되는 모든 경전은 모두 언어문자로 표현하는 말일 뿐이요. 배우는 사람이 근본 이치를 알지 못하고 표현하는 이름이나 글귀에서 지해(知解)를 내니, 이는 모두 언어문자에 의지하는 결과라 인과에 떨어져 삼계의 생사윤회를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대가 만약 나고 죽고 가고 머무름을 옷을 입고 벗듯이 자유롭게 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법을 듣고 있는 사람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 사람은 형체나 모양이 없으며,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으며, 어디에도 머무는 곳이 없이 물고기가 마음대로 헤엄치듯 움직이고 있으니 온갖 방편의 시설에 응하나 작용하는 자취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찾으려면 더욱 멀어지고 구하려고 하면 더욱 어긋나버리니 이것을 비밀이라 하는 것이니라."

이 장에 와서 임제는 또 공부하는 사람이 명심해야 할 점을 상기시킨다. 이름이나 글귀에 집착해서 도의 근원을 잘못 알지 말라는 주의다. 명구상의 지해는 사람의 생각이 지식적인 개념에 머물러 의식화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는 도를 깨닫는 장애물이라 도안(道眼)을 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도(道) 그 자체는 지식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유심(思惟心)으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각경(圓覺經)〉에 "사유심으로 여래의 원각경계를 헤아리는 것은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다"고 한 말이 있다.

〈삼승십이분교〉는 부처님 말씀 전체를 수록한 경전을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12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경전이 비록 법을 설해 놓은 말씀이지만 이는 말로 이해시키는 설명이다. 이른바 방편설인 것이다. 선에서는 이 방편설을 곡담(曲談)이라 하며 이를 떠나 직설(直說)인 격외선지(格外禪旨)를 터득할 것을 요구한다.

인과에 떨어진다는 말은 잘못된 업을 지어 나쁜 과보를 받는다는 뜻이다. 백장야호(百丈野狐)의 선화(禪話)에 "수행을 크게 이룬 사람도 인과에 떨어지는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떨어지지 않는다(不落因果)"고 답하여 500생의 여우 몸을 받았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不昧因果)"고 답하여 여우 몸을 벗어나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연상케 한다. 백장(百丈)을 만나기 전에는 대답을 잘못하여 여우 몸을 받았다는 것이고 백장(百丈)을 만난 후에는 대답을 바로 하여 여우 몸을 벗어나게 했다 하여 전백장후백장(前百丈後百丈) 이야기라고도 한다. 나고 죽는 생사를 옷을 입고 벗는 것에 비유하여 말하기도 한다. 고려 시대 자진원오(慈眞圓悟 · 1215~1286) 국사의 임종게에 "태어나는 것은 옷을 입는 것이고 죽는 것은 옷을 벗는 것이다(生也如着裙 死也如脫裾)"고 하였다.

'나고 죽고 가고 오고' 하는 생사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법문을 들을 때 듣는 그 사람을 바로 알라고 하였다. 이는 자기 진아(眞我)를 찾으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정체를 망각한 사람들을 향해 임제는 매서운 일침을 가하고 있다. 임제가 무위진인(無位眞人)이라 하고 무의도인(無依道人)이라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자기 정체인 '진아'이다. 선은 정체 회복의 공부다.

이 '진아'가 오온으로 구성된 육신의 옷을 입고 벗는 주인이다. 일체의 속박을 벗으나 아무 데도 의지함이 없는 자유자재한 존재로 끝없는 대기대용(大機大用)을 발휘하는 당사자인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도 머무는 자리가 없다.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적인 위치가 없다. 좌표를 점찍을 수 있는, 누구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정체 없는 정체가 무위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앞세워 찾으려 하면 더욱 멀어진다고 하였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부득이 비밀이라는 말을 덧붙여 놓았다. 그야말로 알 수 없는 비밀이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오염된 의식의 범부, 깨끗한 의식의 붓다



세상 속 경전읽기

㉕ 공성상(空性相)

청화 스님이 엮은 금타대화상의 〈금강심론(金剛心論〉 '제1편 일인전에 일인도 제2장 보리방편문 제3절 삼신요별(三身了別)'에, 법신(法身) · 보신(報身) · 화신(化身)의 삼신(三身)을 각각 법신은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 체대(體大). 진(眞). 공(空)], 보신은 원융무애지[圓融無礙智. 상대(相大). 여(如). 성(性)], 화신은 수연불변식[隨緣不變識. 용대(用大). 여여(如如). 상(相)]으로 배대하였다. 곧 법 · 보 · 화 삼신이 심 · 지 · 식(心 · 智 · 識)이며, 〈대승기신론〉의 체 · 상 · 용 삼대와 같으며, 진 · 여 · 여여(眞 · 如 · 如如)이며, 공 · 성 · 상(空 · 性 · 相)이라는 것이다.

법 · 보 · 화 삼신이 진리의 여러 측면을 인격화한 것이라면, 공 · 성 · 상(空 · 性 · 相)은 이치로 본 것이다. 수연불변식은 일진여[一眞如. 대승기신론의 일심(一心)]가 인연에 따라 오염하되[隨緣眞如], 변하지 않고 깨끗하여[不變眞如], 오염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如如相]'을 보인다. 이 '여여상[相]'의 그러한 성품[性]이 참공[眞空]인지라, 공 · 성 · 상(空 · 性 · 相)이 하나도 아니요[非一], 둘도 아니며[非二], 또한 셋도 아니다[亦非三].

삼신과 공성상의 관계를 다시 부연하자면, 진[眞. 법신, 공(空)] · 여[如. 보신, 성(性)]가 삼계육도[여여(如如).화신. 상(相). 곧 욕 · 색 · 무색계 삼계의 지옥 · 아귀 · 축생 · 아수라 · 인 · 천의 육도(六途)]에서, 인연 따라 다르게 익어가니[隨緣異熟] 오염된 의식을 받아들이는 범부 중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성품은 변치 않으니[眞性不變] 깨끗한 의식을 받아들이는 성인이요 붓다이다.

오염된 중생과 깨끗한 성인이 함께 있는 그대로의 모습[如如相]이 화신이고, 오염과 깨끗함이 한결같은 일여의 성품[一如性]이 보신이며, 성품과 모양의 본래 공한 경지[本空境地]가 법신이다.

법신은 맑은 허공[淸空心界]과 같고, 보신은 (공덕의 성품이) 충만한 바다[淨滿性海]와 같고, 화신은 바다 가운데 떠도는 거품 중생의 모습[漚相衆生]과 같으나, 실상(實相)은 공도 아니고 유(有)도 아니며[非空非有], 참붓다는 3신(三身)도 아니니, 수행을 통해 말과 글을 떠난 실제 뜻을 요해(了解)하도록 해야 한다.

〈대반열반경〉에 이자삼점[伊字三點. ∴ 또는 ∵. 산스크리트]의 비유가 나온다. 점 세 개를 삼각형으로 찍어 놓은 글자를 가리키며, 산스크리트 문자 의 발음을 음사(音寫)한 것이 한자로 '이(伊)'이므로 이자삼점이라 한다. 이는 가로도 세로도 아니고 삼각의 관계를 이루었으므로 물(物)이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으며[不一不異], 앞도 뒤도 아닌 것[非前非後]에 비유한 것이다. 열반경에서는 법신 · 반야 · 해탈의 삼덕(三德)에 비유한다. 다른 곳에서는 공 · 성 · 상(空 · 性 · 相), 법보화 삼신, 불법승 삼보, 삼법인 등이, '셋이 곧 하나이며[三卽一], 하나가 곧 셋임[一卽三]'에 비유하기도 한다.

"무엇을 이름하여 '비밀히 감춘 것'이라 하느냐. 마치 '이자의 세 점 ∴' 과 같다. 만약 (가로로) 나란히 있어도 이(伊)자를 이루지 못하고 세로로 있어도 또한 (이자가) 이루어지지 않나니, 마치 마혜수라왕 [대자재천(大自在天), 색계의 맨 위에 있는 색구경천(色究竟天)에 사는 신(神). 힌두교의 시바신] 얼굴에 눈이 세 개 있는 것과 같아야 비로소 이자삼점을 이루는 것이다. 만약 각각이라면 또한 다시 글자를 이루지 못한다. 나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해탈(解脫)의 법이 열반이 아니요, 여래의 몸[法身]도 열반이 아니며, 마하반야(摩訶般若) 또한 열반이 아니니, 세 가지 법이 각기 다름도 또한 열반이 아니니라. 나도 이제 이와 같은 세 가지 법에 안주하나 중생을 위한 까닭에 (짐짓) 이름하여 열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니라."

〈大般涅槃經 T0374_.12.0376c11–17, T0375_.12.0616b10–16〉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㉑ 닦음의 길 11

인욕, 평정심 찾는 것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에너지도 총량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폭발하게 된다. 예컨대 화를 참을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10이라면, 10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비로소 화를 내는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심한 욕을 들었을 경우 그 에너지가 8이라면 아직 2라는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참을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5에 해당되는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다면, 총량인 10을 넘어서는 13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화'라는 감정을 밖으로 분출하게 된다. 이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다. 그렇다면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6바라밀 가운데 욕됨을 참는 수행으로 인욕바라밀이 있다. 인욕은 화가 났을 때 이를 대치하는 공부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이는 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忍土)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인욕바라밀은 억지로 참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 물론 그것은 아니다. 억지로 참는 것은 오히려 몸과 마음을 해치기 때문에 차라리 화를 내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수행으로서 인욕바라밀은 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는 공부다.

언젠가 한 바라문이 붓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은 적이 있다. 붓다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비유를 들어 상대를 설득시킨다.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 바라문은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대접한다고 대답한다. 그런데 손님이 바빠서 음식을 먹지 않고 돌아갈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 되묻자 그럴 때는 버리기 아까워서 자신이 먹는다고 답하였다. 이때 붓다는 촌철살인의 한 마디를 던진다.

"당신은 나에게 욕이라는 음식을 대접했지만,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욕은 누가 먹어야 하겠습니까?"

얼굴이 빨개진 바라문은 자신의 무례를 깨닫고 용서를 구한 다음 붓다의 제자가 된다. 자신을 향해 욕을 하는 사람마저 제자로 만드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 힘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에서 나온다. 평정의 마음일 때 그 어떤 거친 욕이라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욕바라밀의 핵심은 참는 데 있다기보다는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인내는 마음의 평정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작용이다.

대개는 현장(玄奘, 602~664)의 인욕이란 번역을 많이 쓰지만, 개인적으로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의 안인(安忍)이란 번역이 더 마음에 든다. 마음이 평안(安)할 때 욕됨을 참을(忍)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이다. 〈금강경〉에는 붓다의 전생인 인욕선인(忍辱仙人)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가리왕은 인욕선인의 팔과 다리를 잘랐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반대로 잘린 팔과 다리를 제석천(帝釋天)이 붙여줬을 때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를 가리켜 양무심(兩無心)이라 한다. 욕됨을 당했을 때나 도움을 받았을 때나 둘 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 무심이 곧 안(安)이고 여기에서 참다운 인(忍)이 나왔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욕을 들으면 쉽게 화를 내고, 반대로 칭찬을 들으면 즐거워한다. 그런데 화를 내거나 기뻐하는 상황 모두 주체는 내가 아니라 상대였다. 결국 주연인 상대의 말에 따라 조연인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린 것이다. 기분이 상할지 몰라도 그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놀아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모두가 평정의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우리 속담에 참을 인(忍) 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세 번 참는 동안 그 마음이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 억지로 참으면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기 이전에 마음을 평정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욕은 단순히 참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安)을 통해 중생에서 부처로, 조연에서 주연의 삶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공부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삶 속 붓다 가르침 '일상 명상'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⑬ 평화와 평정심



13-1 빙산의 윗부분은 표면 마음이고 밑둥은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삶의 배경입니다. 삶의 실상을 잘 볼 수 있는 사건이 최근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위를 하던 흑인을 목눌러 제압한 백인 경찰이 숨이 막혀 바둥거리는 것을 계속 저항한다고 더욱 강하게 눌러 살인에 이르렀습니다. 신속히 제압하여 수갑을 채운 후에는 목누르기를 중지해야 했음에도 그동안 경찰의 과잉 제압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법집행이라고 합리화 해온 데 대해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신대륙에 입성하여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정복하면서 인디언들의 보복을 대처하기 위해 무기 소지가 일상화되었고, 총기에 의한 무차별 끔찍한 사고가 수시로 발생해도 무기 소지법이 폐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무기 산업이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었고 세계 경찰 역할을 자임하게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오직 자기 나라만 잘 살려는 이기심을 숨기지 않고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트럼프의 아집과 독선에 의해 산산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와 선교를 통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우월한 문명국으로 뽐내던 서구의 민낯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 드러난 것이지요. 그동안 추구하고 뽐내온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사랑의 정신은 코로나에 의해 빙산 밑둥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13-2 그런가 하면 부모가 아이를 가방에 가두어 질식 사망케 하고 무차별 구타 감금한 사건들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몸의 멍을 발견하여 아동 학대임을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경찰은 부모의 폭력을 가볍게 넘겨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사고를 미리 예견하여 선제적 조치를 하는 데는 아직 미흡합니다. 모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 처방에만 급급하여 언제나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기심은 사회 전반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가 참혹합니다. 마음의 은밀한 작용이 개인의 불행과 고통만이 아닌 사회 전반 그리고 세계 전체에 물결처럼 퍼져나감을 봅니다. 이를 잘 보고 잘 알지 못하면 인간의 고통은 끊임없이 형태를 달리하여 지속될 것입니다. 이기적 욕망이 오만과 편견으로 각종 차별과 폭력으로 나타나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군요.

13-3 '잘 보고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된다(여실지견 · 如實知見)' 는 붓다의 가르침은 삶을 떠나면 무의미합니다. 일상 속에서 적용되고 일상 안에서 살아 숨 쉬어야 합니다. '일상선' 곧 일상 명상입니다. 마음이라는 공간에 원치 않는 생각이나 감정의 구름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없애려 하거나 억누르려 해봐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힘이 세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치하려 해도 잘 안되고 의지로 해결할 수 없군요. 일시적으로 생각을 없애기는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과 연결된 무의식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석적 심리치료가 등장하였지요. 명상에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생각을 비우려 하기보다 생각을 바라보라.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번뇌를 바라보라.

물동이를 가만히 놔두면 흙탕물이 가라앉듯이 생각을 바라보면 저절로 그 생각의 혼탁함이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 시험해볼까요? 차별하는 마음(편견과 혐오감)도 사라지나요?(웃음)

13-4 명상을 무념무상으로 여기거나 생각 없애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명상은 크게 두 날개로 이루어집니다. 집중과 관찰이 그것이지요. 집중의 측면을 강조하면 맞는 이야기이나 관찰의 측면에선 잘못된 것이지요. 생각을 잘 보는 것도 명상의 기능입니다. 잘 보려면 집중력이 밑받침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집중과 관찰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명상이란 새가 잘 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상상력을 이용하고 창의력을 키웁니다. 즉 좋지 않은 생각에서는 벗어나게 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은 활발해지지요. 상상력도 풍부해집니다. 집중과 관찰이 잘 되면 통찰(깨달음)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지식이 아닌 지혜입니다. 숨은 욕망과 분노를 자각하는 통찰에 스스로 이르게 됨을 말합니다. 결국 명상을 하는 목적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마음 작용, 개인 넘어 세계 퍼져
지혜 · 자비 증상, 명상 통해 가능
내면 풍파 잠재울 평상심 필요

13-5 부부 갈등으로 상담실을 찾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배우자와의 갈등은 모든 갈등의 표본이 됩니다.

독실한 종교인인 중년 여성이 배우자와의 심한 불화로 이혼을 결심하고 형제들과 모여 상의합니다. 오랫만에 형제 간에 대화를 나누던 중 '내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 다른 형제에 비해 물질적으로도 차별 받았다' 는 생각이 떠오르자 내면에서 엄청난 분노가 솟구치더라는 거였습니다. 급기야 고성이 오가고 상황은 급반전하여 전쟁터가 되고 말았답니다. 게다가 상대를 죽여버리고 싶은 적개심으로 살인도 이렇게 해서 일어나겠구나 하였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또 언제 일어났는지 떠올려보라 하였지요. 그러자 내담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 분노가 배우자에게 느낀 감정과 그 과정이 너무 동일하다는 거지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기성 종교의 가르침대로라면 신이나 사탄 둘 중의 한 쪽 작품이겠군요. 그녀는 수십 년 신앙생활도 분노 앞에서 속수무책임을 한탄하였습니다.

13-6 이렇게 우리 마음은 잔잔한 파도에서 광풍 노도로 변하게 되곤 하는데 여러 차별과 학대의 경험과 기억 회상과 비교하고 평가하는 마음들이 복잡하게 얽혀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분노는 이름이 분노이지 마음의 일련의 연쇄 작용임을 알 수 있군요. 상대방이 만들어 준 게 아니라는 거지요. 분노 조절은 종교의 유무에 있지 않음을 이 사례에서 봅니다. 오직 내면의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로 판가름 나는 것이지요. 잘 가꾸어진 마음 밭이라면 돌멩이 하나 던져졌다고 온 밭이 쑥대밭이 될 리가 없지요. 마음 밭 관리를 평소에 하지 않고 바깥만 치장하면 온갖 잡초와 돌, 자갈들로 무성하게 되어버려 자제 불능이 되는 거지요.

문제 상황마다 외부에 책임을 묻고 외부에서 해결책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종교생활도 외부에서 구원이 온다고 믿고 있는 한, 감정 조절의 책임도 외부에 의존적인 삶이 되고 맙니다. 평소 지붕과 창을 잘 관리하면 장마를 걱정할 필요 없고 천둥번개 칠 때마다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듯이, 내면의 욕망과 분노를 잘 성찰하고 자각하는 깨어있는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에겐 내면의 풍파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 있습니다.

13-7 어떻게 해야 관계에서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상대와 대화를 할 때 어떤 언행에서 기분이 상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바람직할까요?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나의 불편함을 억압하거나 숨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군요.

지금껏 사용한 자신의 대화 방식이 2인칭 주어 방식이었음을 확인해보세요.

"네가 나를 무시했어. 너는 나를 비난했어."라고 말하곤 하지요.

해법은 1인칭 주어를 사용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방금 그 말(행동)에 비난 받는 느낌이 들고 마음이 상했어."

"나는 그 말에 거절(무시)당한 기분이야."

상대를 직접 비난하지 않고 내가 속상함을 느낀 그대로 말해줌으로써 상대가 내 마음 상했음을 알게 하고 스스로 자신의 언행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비난 없이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하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됨을 확인해보세요. 머리가 아닌 가슴에 호소하는 것이지요. 생각을 피력하면 주장이 되지만 아픔을 이야기하면 상대의 가슴도 울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상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열립니다. 상호 이해 상호 존중이 가능해지는 거지요. 평행선을 긋던 상호 비난과 자기 정당화의 지루한 언쟁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관계의 회복과 의식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아무렇지도 않다' 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고 '너만 문제야' 라는 태도는 더욱 아니지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보는 것이 해답입니다. 스승께서도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먼저 보라 하셨지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을 보고 알아주는 것이지요.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생각이 나는가를 바라보노라면 삶은 투쟁 모드에서 벗어나 즐기는 모드가 되는군요.

13-8 명상은 긍정적 상상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푸른 하늘을 떠올려 보세요.
하늘에 한가로이 구름이 떠가고
새들도 자유로이 날고 있군요.
비록 집안에 있어도 산을 떠올리고
계곡물이 시원하게 맑은 소리로 흐르는 장면도 떠올리고
한가로이 풀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거나
백사장 모래밭에 몸을 푹 담그고 하늘을 바라보아도 되고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자연은 스승입니다.
돌멩이 하나
풀 한포기
꽃 한 송이
바람 한줄기
구름 한조각
지나가는 강아지
새들의 지저귐
빗물 떨어지는 소리
포근히 내려앉는 눈송이
하나에도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자연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으니
분리감도 차별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자연으로 내려놓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자연은 내가 되고 나는 자연이 되어
모두 하나인 생명입니다.

〈한별정신건강병원장〉

삶의 지혜를 일깨우는 진리의 말씀!
법구경



국문학자의 손길이 닿은, 적절한 현대어 선택과
운율을 고려한 번역! 늘 옆에 두고 경구처럼 읽고 되뇌면서
삶과 수행의 지남으로 삼을 가르침!
이종기 옮김/양장/360쪽/값 18,000원

명나라 4대 고승 감산대사의 주석!
수능엄경통의 1·2



불교의 철리와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수행자들의
필수 지침서! '일심삼관一心三觀의 종지'로 원융회통한,
"교법의 준칙이요 선종의 정안正眼!"
감산 덕청 지음/장순용 역주/양장/1권 27,000원/2권 25,000원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제5대 뻰첸라마의 가르침!
보리도차제의
마르티 일체지로 나아가는 지름길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실천 수행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도이자 안내서!
뻰첸라마 롭상예쎄 지음/법장 옮김/양장/496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99호 | 15 | 전면광고

많이 외운다고 이익될 것 없으니 잘 외운다고
훌륭한 것이 아니다. 목동이 주인의 소를 아무리
많이 세어도 자기 소는 한 마리도 없는 것과 같다.
한 구절만 알고 도를 깨우침만 못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일아함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발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산신각

펜션(육송 나무목재만 사용)
원명 010-4300-9104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검 색★

①네이버
운명자가진단 손금보기
②유튜브
손도사 동영상
인간계발과 MBTI연구원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그린그린 및 심리상담치유

한의학전공, 한중역학대학원석사증, 철학박사학위증, 심리상담치유자격증 2011-12-82948호 / 사업자등록번호 576-10-00995호 / 통신판매업신고증 제2019-전남보성-00002호

모든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는법 / 병원에 다녀도 치유가 안되시는 분 / 불면증 / 스트레스 및 화병 / 우울증 / 조울증 / 노인및 건망증 클리닉 / 여성및 갱년기클리닉 / 소아청소년상담 / 부부상담 / 정신장애 / 두통 / 빙의

* 치매상담후 한달이내 완치 *
010-4866-8055 / 061-852-1003

사 궁 이 택 타 / 주 합 름 일 로

당신의 고민을 시원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바로전화주세요.
** 전화상담 가능 **
02-927-2683

입종 동참안내

*****
부처님의정원·사암·포교원
선원·불교문화원·종단
단체·연합회
입종 동참바랍니다
한국불교 종무청
010-5412-8040 법광

사람을 찾습니다

*****
고향 : 해남군 삼산면
석당리
출가, 비구니가
됐다고 함.
연락 바랍니다.
010-4512-4248

• • •
팔공산 천년고찰
운전도 하고 주지스님
수발하실 보살님 구함
(50대~60세)
• • •
010-8833-4416

• • •
부처님 세분
여법히 모실
비구니스님
연락바랍니다.
• • •
010-5359-9620

생각대로 되는

기도법을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명 리 · 육 효 강 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수강생 모집(그림)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매주 수·목요일 주 2일 [월 8일]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산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
선원대중스님 후원봉사하실
신도님 기다립니다.
• • •
010-3928-7083
055-382-7083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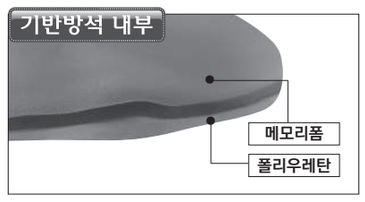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법성사
• 법 명 : 이사장 황이환 외 집행부 일동
• 주 소 : 경남 창녕군 계성면
계성화왕산로 182

상기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법성사와 이사회 임원 일동은
2020. 5. 29.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귀 종단의 탈종을 공고함.

불기 2564년 7월 1일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99호 | 16 | 전면광고

도에 가까우면 이름이 드러나서 높은 산의 눈과 같고, 도에서 멀면 지혜에 어두워서 밤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부지 : 500평
◎ 건물3동
◎ 북한산차량진입
◎ 매가 : 8억1천5백

◎ 위치 : 경기
◎ 부지 : 210평
◎ 건물 : 대웅전,요사
◎ 신도시중심
◎ 매가 : 7억5천만원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사찰순례,채권상담,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35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1동은 세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3269-102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3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 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010-5718-007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50평 ● 요사 : 65평
- 대지 : 5백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천수천안사, 3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60만원
- 시설금 3천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00평, 산168-2번지 4,130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1동(납골당용)
- 특징 : 백병산 중턱의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매수대금 분할상환가능)
- 가액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 2층 30평 법당
- 주차장 확보
- 가액 : 3억 9천만원

010-5804-5100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김해 선안다리 5분거리
- 물건 : 260여평, 법당, 요사, 종각
- 주변이천세대, 시세 평당 350만
- 가액 : 7억5천만원(은) 2억3천 포함

- 부산 장림역1km 토지 5천여평
- 신촌초 옆 주거지 1천여평 포함
- 가액 : 7억5천(은)3억3천 포함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5억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5분거리
- 관악산, 까치산 청정도량
- 재래시장 인근, 이동인구 많음 4층건물 중 2층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 시설 권리금 없음

010-3657-95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북구 호계동 유황사우나 부근3층
- 약 50평, 방3개, 옥상사용
- 보증금 1천만원
- 월 80만원
- 시설금 약간

010-2074-6825

5층코너 상가주택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내 최고요지, 아파트 앞
- 평수 : 대지 80평, 건평 약230평, 대리석건물, 점포6칸임, 지하1층부터 3층까지 상가임
- 4층 : 주인세대 47평, 방4칸, 화장실2, 넓은거실, 모두 수리완료
  3층 포교원 : 47평 최신설비 불단조성, 종무소 스님방, 남녀화장실, 주방, 세면장, 도시가스 단, 부처님, 탱화, 기타 법기물 일체는 매매에서 제외함
- 참고사항 : 포교원 경영하면서 상가수입 득함, 주차장있음, 도시가스, 일조권, 조망권 최고, 생활편리 주변 문화시설 대형마트
- 급매가격 : 7억 5천만원(스님 노환관계로) 금융융자 : 3억 5천만원, 상가보증금 4천만원

010-9011-7230

포교당(급)안내

- 위치:경북 포항시 오천
- 2층(60평)전체
- 삼존불, 탱화, 소불
- 완전 현대식 수리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1억 2천만원

010-2857- 2811

사찰(급) 안내

- 위치 : 서울시 정릉, 국민대학 건너편
- 171번지 버스종점 옆
- 스님의 50년된 암자
- 약10평정도 텃밭 있음
- 성북구청에서 무허가 대장이 등록된 집이라 명의 이전됩니다.
- 스님이 호주 이민관계로 양도함
- 매매 5천만원, 권리금 2천만원

010-5399-1225

인천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 : 창고형, 1층 : 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 : 방3, 화장실, 3층 : 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정상 급양도함, 사찰연력 : 40여년) ● 답사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최신식 임법당. 경남. 아주 위치좋음. 선전최고위치 궁궐 꽃도량. 신도많음. 스님. 무속인 환영. 최고 위치좋음.
- 건평 52평. 대지 200평 정도.
- 앉아만 있어도 돈 들어오는 최고 요지.
- 가액 삼억 팔천 절충 가능.

010-4137-132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지하철 역세권 (도로인접 2층)
- 평수 : 50평, 도시가스 (접근성 양호)
- 재래시장 인근, 몸만 오시면
-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2042-42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 평수 : 93평 ● 전망 : 낙동강 하구언, 공원 맞은편
- 법당 45평, 상담실, 방3칸, 식당, 화장실
- 시설(특) : 승강기있음
- 매도가액 : 6억
- 신도확보유, 건강상 이유로 매도

010-2708-1800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 부지 : 200평(종교용지)외 국유지 500평(불하가능)
- 법당 : 40평, 요사채 : 40평
- 기타 : 산신각, 종각, 석탑등
- 가액 : 5억5천만원(조정가능)
- 특징 : 산사에 위치한 멋진 사찰입니다. 주지스님의 건강관계로 저렴하게 양도코져합니다.

010-4942-0455

대형사찰 급매

- 위치 : 창원역15분, 마금산온천 5분거리
- 총면적 : 20,496㎡
- 가액 : 15억(대출금5억포함), 사찰투자가치 : 35억상당 (창원의창, 내곡지구 경계 평값상승, 평값만 20억 상당)
- 5억주시면 등기부등본 이전해드림 (분할납부)
- 10,000㎡ : 대형 대웅전 최신 단청완료 문화재급 단청 원목시공
- 사찰불상 최고급, 탑, 모든 종교시설 일체
- 10,496㎡ : 납골당및 전원주택 일부 개발
- 사회복지원및 타 용도 일부 가능함
- 사찰앞 토지까지 신도시 개발로 4차선 공사중

010-9647-0723

부산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구 충무동 골목시장
- 시설완벽, 법당43평, 요사체43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66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6년간 운영한 곳

010-2618-7676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1천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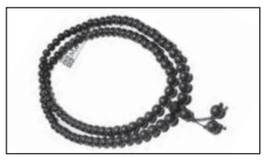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마음공부는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허공을 걷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질문 대행 스님의 법문집 제목도 '허공을 걷는 길' 인데 허공을 걷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답변 우리가 한마음으로써 점프를 해서 뛰는 것이 허공을 걷는 건데, 지금 여기서 계단을 밟지 않고 오는 것도 허공을 걸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길 아닌 길을 찾아라." 그리고 또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한 것도 우리가 둘 아닌 도리에서 어느 거든지 둘 아니게 모두가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그 뜻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만 배웠지, 이론만 알았지 도무지 실천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게 무의미하게 그냥 떨어지죠.

이 중세계에서 일체 만물만생이 다 모습은 천차만별이지만 그 모습 속은 모두 곤충 주머니예요. 이 곤충 주머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허공 길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살아나가는 데 관습과 의식이, 욕심이 모든 게 그렇게 습관이 돼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어도 자기 모습이 그대로 있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지옥고를 딛고 나가려도 디딜 수가 없고, 강을 건너려도 건널 수가 없고, 또 불 수레를 건너가려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자기가 있다는 관념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세계에서 살아나가는 데에 어떻게 살아야 편안하겠습니까? 이 부딪치고 부딪치고, 이렇게 수레가 돌아가면서 부딪치듯, 우리가 살아 있으니깐 이렇게 부딪치는 이 천차만별의 이치, 우리는 거기에서 바로 지혜도 생기고 물리도 터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불' 이요, 바로 부딪치면서 살아나가는 것은 '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언어지, 어떠한 중들만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국한된 마음이 아닙니다. 이 불교라는 자체는 끝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둘 아닌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셨다고 했죠.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고 형성돼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연방, 수억겁을 거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거 나온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내 도량 아닌 게 없고, 내 모습 아닌 게 없습니다. 안 그럴까요? 개구리가 돼 가지고 올챙이 적 생각을 못 하지만, 개구리라고 그래 봤자 올챙이 과정을 거쳤단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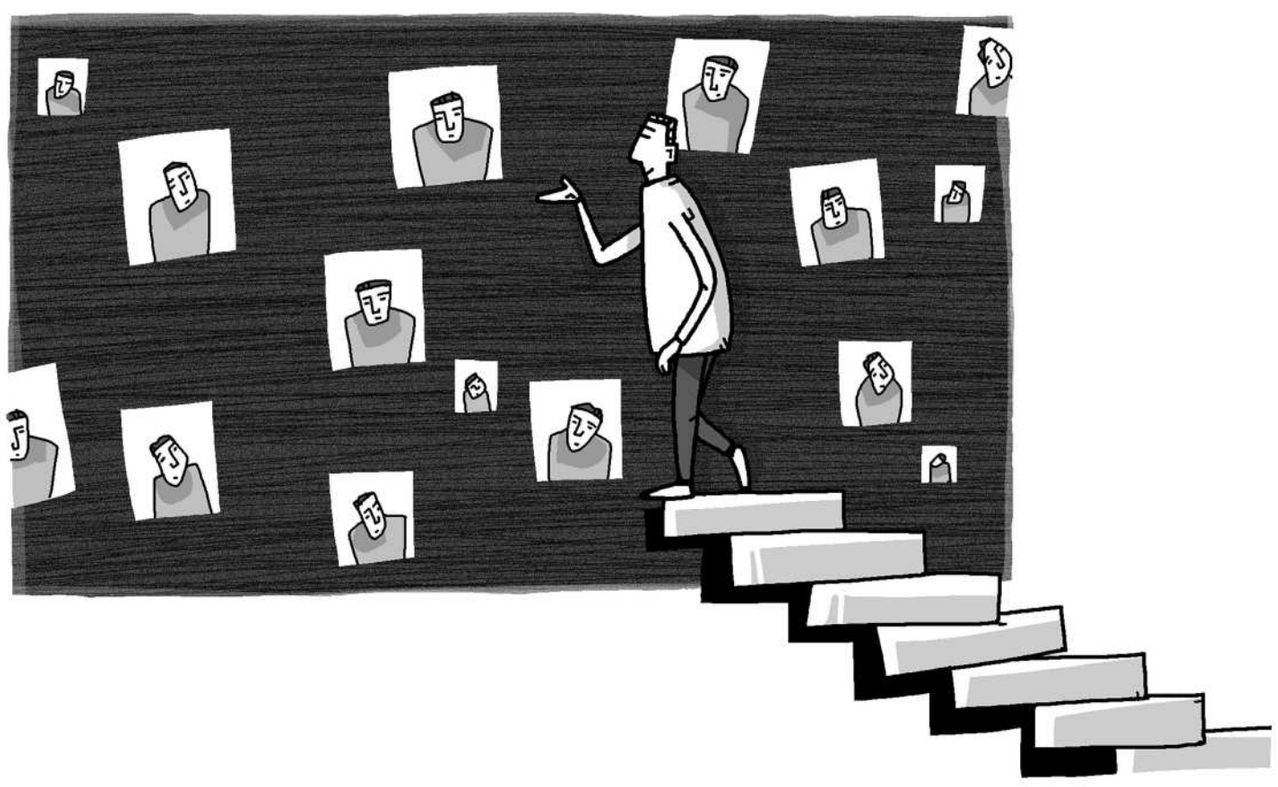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우리가 먹지만 않는다면, 먹는 게 없다면 이렇게 강도도 없을 거고, 사기도 없을 거고, 싸움도 없을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먹으니깐 똥을 눠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이 잠자고 똥 누고 먹고 이러는 게 없다면, 그렇게 세 가지를 다 안 할 수 있다면 그건 별천지죠. 부처님의 한도량이죠.

그 한마음 도량에서 관세음보살도 되고, 지장도 되고, 칠성도 되고, 주산신도 되고, 주해신도 되고, 전부 보디가드도 되고, 길잡이도 되고, 의사도 되고, 아니 되는 거 없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그냥 발버둥이를 치고 애를 쓰니….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는 거지, 자기 뿌릴 믿지 않고 형상이나 이름을 믿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저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몸체를 두고도 배움의 길에 있어서 속도가 너무 빠르게…, 저 거리를 걸어간다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속도가 너무 빠르면 보이지도 않고 바람만 설설 일어나죠. 이런 거 짐작해 보셨습니까? 또 체가 없는 나가 허공 길을 걸어갈 때는 가고 옴이 없이 갔다가 전체를 요만하게 만들어서 갖다 놓고 볼 수도 있죠. 큰 거를 그 가운데 들어가서 보려면은 다 못 봅니다. 작아야 전체를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허공 길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이 마음도리…, 아까 얘기했죠.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고 그런다고요. 만약에 이 계단을 올라올 때 마음이 올라온다면 점프해서 그냥 올라올 수 있는데, 몸으로 오려니깐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마음으로는 그렇게 이 세상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할래도 할 수 있는 마음의 도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이 둘 아니게, 즉 말하자면 어느 모습 하나도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또 내 작용 아닌 게 없고, 내 공식 아닌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다 그렇게 어떠한 인연에 따라서 용건이 들어와도 나는 허공 길을 걸어야만 되겠죠. 찰나에 그 모습으로 화해서 나투어야죠. 만약에 짐승이 나를 청했다. 그걸 '짐승을 건져야겠다' 이런다면 내가 그 짐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모습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공용이다, 공식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건져 주는 데도, 하다못해 물에서 노는 고기 한 마릴 건져도 내가 수많게 화해서 그 고기로도 들어가고 짐승에도 들어가고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바로 그걸 건지는 겁니다.

부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공부 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전제를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점프를 해서 계단을 한걸음에 올라올 수 있다면 강은 못 건너가겠습니까? 강 속은 못 들어가겠습니까? 은산철벽은 못 뚫겠습니까? 삼라대천세계는 못 가겠습니까? 두루 하죠. 덮고도 받치고도 남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알아야 요다음에도 허공 길에 발을 떼어 놓을 때 서슴없이 떼어 놓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휴, 나는 뭐, 중생인데 어떻게 허공에 발을 떼어 놓을 수가 있나?' 이러지만, 우리가 그냥 거기다가 맡기고 관하고 이러는 게 그대로 내가 죽는 방법이요, 내가 함이 없이 하는 방법이요, 둘 아닌 도리를 아는 방법이요, 구경계에 이르는 방법이요, 전부가 아니 되는 게, 아니 하는 게 없는 방법입니다.

주인공과 상봉하고 싶어요

질문 주인공이라는 것을 빨리 알고 싶은데 잘 안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공과 상봉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주인공! 네가 전부 하는 거지. 네가 들이고 내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울든 웃든 네가 하는 거지.' 그러고 한데로 몰아요, 자꾸. '주인공이 모든 거를 하는구나.' 하는 거를 한군데로 몰아요. 몰다 보면은 나와요. 몰아붙여요.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 했으니 몰아붙이는 놈도 공이요, 또 놓는 그 자리도 공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 그 주인공에 다 일임시키고 거기다가 다 감사하고 그렇게 하세요. 거기서 하는 거니까. 일상생활을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고 하는 것을. 그러니 그대로 주인공이 한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놔 버려요. 그러면은 어느 땐가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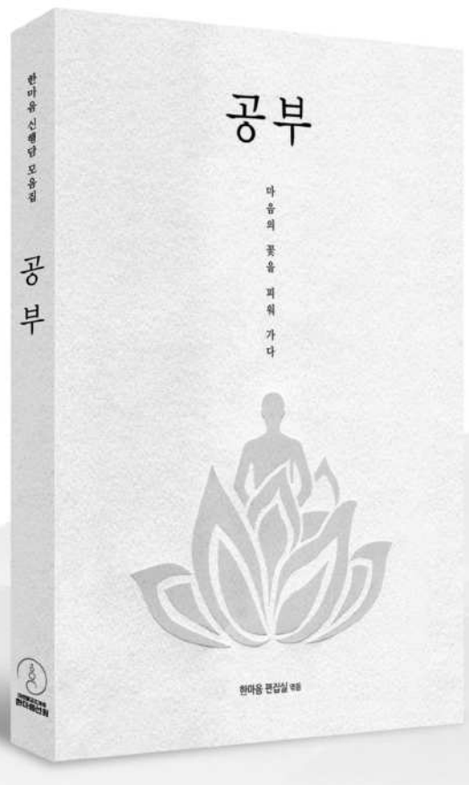
왜 마음이 갈수록 험악해질까요

질문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마음들이 참 험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고, 더군다나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도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의 마음들이 갈수록 거칠고 이기적으로 돼 가는 것일까요?

답변 우리가 사람으로 인도환생을 했는데 인도환생을 해 가지고도 잡아먹길 좋아하고 그냥 남을 죽이길 좋아하고 이렇게 그냥, 그

☞ 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끼니를때울게 없더라도그냥웃을줄알아야돼요

☞ 17면에서 계속

습이 남아서 그렇게 하면 죽어서 도로 그리로 돌아가요, 도로. 도루묵이 되죠. 그러니깐 모든 게 끼리끼리 놓여져 있죠. 이 세상에는 모두 끼리끼리 놓여져 있지 않은 게 없죠. 하다못해 요만한 거, 대추 하나라도 감하고 대추하고 한데 어우러진 게 하나도 없죠. 끼리끼리 놓여져 있지.

그렇듯이 누구가 이쪽으로 넣고 저쪽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차원이 일차원이라면 일차원으로 가고 이차원이라면 이차원으로 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금이 망가졌어도 금은 딴 데로 안 가요, 금방으로 가지. 깡통은 아무리 찌그러지고 성하고 간에 깡통전으로 가죠. 깡통 모아 놓은 데로. 넝마들은 넝마전으로 가고요. 무쇠는 무쇠대로 가고요. 그러니까 누가 갖다 놓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그대로 그냥 옮겨지는 거죠. 사람도 역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찰나찰나 우리 한생각을 하고 회향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저 그냥 살다가 보면 그냥 닥치면 닥치는 대로 그냥 해 버리고는 그 회향을 제대로 하질 못하고 이탈된 회향이 돼 가지고선 그게 그냥 뭉치고 뭉치고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고, 그 고생들 하고 사시는 분 중에도 아버질 죽인다 자식을 죽인다 또는 강도를 한다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원인이 그 이유가 다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어린애를 낳기 전에 관해라. 좋은 영가로 받기 위해서 관해라. 어린애가 배 속에 있을 적에도 관해라. 낳고도 관해라. 백일 위까지 그렇게 관하고 나면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간다. 그래서 하다못해 요새 회사를 그만 파하고 은행도 파하고 다 그만두고선 뭐, 그냥 끼니를 때울 게 없다 이러더라도 웃을 줄 알아야 된다. 눈물 흘리면 안 돼요. 웃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웃을 줄 알면 웃게 된단 얘깁니다. 그런데 웃을 줄을 모르고 그냥 제가끔들, 식구 수대로 제가끔들 속에 불안이 그냥 꽉 차 가지고선 남편도, 아내 보기도 그냥 귀찮고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깐 남 안 보는 데 길을 걷다가도 눈물이 나고 그러죠. '인생 이렇게 살아 뭘 하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 구경을 하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갸륵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모두 보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배웁니까? 어떻게 터득을 합니까? 벌레 먹은 나무를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터득을 합니까? 그래서 일체 만물이 다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둘이 아니죠.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짐으로써 모든 마음이, 때로는 어떤 사람이 아프다면 약사로 화해 주고, 관세음보살로도 화해 주고, 지장으로도 화해 주고, 주해신으로도 화해 주고, 산신으로도 화해 주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들고 가도 그릇을, 마음을 열질 않고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 놓질 않고 받질 않아요. 내가 더러더러 이런 일을 당하거든요. 마음으로 거부한다면 그건 받아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서 밥을 굶는다고 그래서 쌀을 한 말 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거지인 줄 아느냐 그러고 내뱉고 그냥 문을 확 닫고 돌아서면 그거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릴 어떻게 보고 그러냐고, 거지로 보느냐고 이러곤 그냥 안 받는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게 조금 남았더라도 그걸 가져왔으면 "참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놓고 또 그것을 자기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갚을 수도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아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다가 부딪쳐서 산산조각이 나는 물방울이 그렇게 많지만
그게 허망한 게 아니라 가라앉으면 바다로 돌아가건만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지금 야단법석들이죠.

그래서 요만한 거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말을 해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그게 있어야 할 거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깐 아, 천차만별이 바로 이게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있고, 저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고, 모두가 이게 둥굴려 가면서 이게…. 그래서 바로 진리로서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알고 보면 정말이지 인생은 이름 없는 물방울 같으면서도 영원하구나 하는 걸 알 겁니다, 아마. 바다가 부딪쳐서 산산조각이 나는 물방울이 그렇게 많지만 그게 허망한 게 아니라 가라앉으면 바다로 돌아가건만,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지금 야단들 법석이죠. 하지만 허무한 게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 생생하게, 여여하게 이 세상을 두루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부는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죽고 사는 걸 겁내지 마세요.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도,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만 아신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리드하고 나갈 수 있고, 자기 자신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그 기반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들이 다 천도되면 좋을 텐데…

질문 요즘은 수많은 사건 사고와 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많은 생명들이 사라져 가는 일이 자주 생기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이 다 천도가 되면 좋을 텐데 사실 너무 극악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별심도 놓아야 하겠지만 여하튼 저같이 모자란 사람의 마음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그래서 이 천도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아는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모르고 살아도 몰라요. 그래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한 찰나면 사람이 저 삼천 년 전으로도 뛰고 삼천 년 후로도 뛰고 일 초 전으로도 뛰고 일 초 후로도 뛸 텐데, 이건 생무지니까 말입니다. 마음이 항상 살던 습이 있거든요. 살아온 습이 있고 욕심이 있고, 모두 습 때문에 그게 그냥 '이건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이거는 정말이지 못해. 우리는 도저히 못 해. 우리는 죄가 많아서 못 해.' 이런 생각 때문에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가로막아서 밝은 생각이 나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정말이지 아픈 눈물이 나는 것은 축생이나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모두 이거는 극치에 이르러서, 수레가 돌아가는 데 거기 끄달려서 그냥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욕심을 부리지 말라. 욕심은 아주 이거는 피치 못할 아픔이 닥쳐요. 그건 왜냐. 상대방도 나도 더불어 이게 아프니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 이겁니다. 자기를 위해 받던들 한 철 사는 건데. 한 철 사는 동안 남을 위하다 보면 나도 다 같이 살게 돼요. 더불어 같이 살게 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위해 주니까, 죽은 사람도 위해 주니까 죽은 사람이 이 나를 도와준단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천 개라면 천 개가 다 도와요, 상황에 따라서. 그건 왜냐. 그 죽은 사람들도 그 마음의 뜻을 알기 때문이죠. 체가 없으면 공부 못 하거든. 근데 남의 체라도 이렇게 지니고 이렇게 찰나찰나 드니까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라도 공부해서 좀 차원이, 지위가 높은 차원이 돼서 뛰어넘으라고 내가 문을 열어 주거든요. 항상 문은 열어 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들락날락하면서 그거를 다 알고 배우니까 아, 이 내 마음만 잘 알면 그거는 다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내 마음 하나만 안다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가는지, 함이 없이 하는 건지 함이 있이 하는 사람인지, 입으로만 조잘조잘하는 건지, 저렇게 말을 해도 함이 없이 한다 이런 건지 그런 것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부처님이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신 원인이 거기에 있구나 하는 걸. 왜냐하면 미생물에서부터 일체 만물만생이 다 내 생명이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다 한 말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거든. 내가 어느 거를 건졌을 때 내가 건졌다고 할 수 있으랴. 그건 말을 못 하죠. 한두 가지가 아니니깐 말입니다.

이건 이거를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저거를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한 사이가 없다." 이렇게 밖엔 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어느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다못해 미생물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이거를 알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돌 하나, 나무 하나, 물 흐르는 거, 산 이런 것도,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해 놓으신 거 모두가 감사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스승 아닌 게 없다고요.

'나는 인간이고 저건 축생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지 말라 이겁니다. 그 축생도 내 스승이에요. 왜? 내가 그걸, 그렇게 처참한 걸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처참하게 죽는 꼴을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고요. 사람도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내가 그 꼴을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았겠느냐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 내 스승이에요. 그러니 모두 가슴이 갈갈이 찢어져서만이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찢어지니까 병이 들죠. 이 하나하나가 죽은 사람도 이 응어리가 살아 있을 때 뭉친 것 때문에 그냥 죽어 있어도 어디 한 발짝을 떼어 놓지 못해요.

이런 얘기 또 합니다만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치여 죽었죠. 치여 죽었는데 그 혼이 놀라서 딱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 몸뚱이가. 정신을 차려서 자기 몸뚱이를 찾으니까 없더란 얘기죠. 없으니까 남의 몸뚱이라도 가져야 이게 거기서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영 한 발짝도 떼어 놓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깨쳐야지 살아생전에 깨치지 못하면 죽어도 깨치지 못한다 이겁니다. 살아생전에 살던 그 습만 남아 있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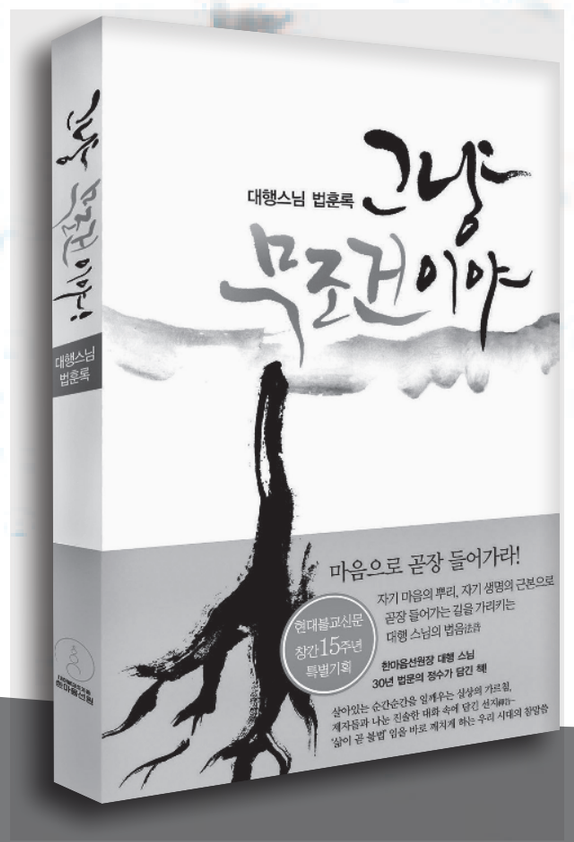
그리고 이 묘지가 있고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난리 때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금방 죽었어도 그 습이 있어서 손을 내밀어도 안 붙잡아요. 그러면 몇 번 그냥 내버려 두죠. 강요해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몇 번 저거 하다 딴 사람들이 다 와야 그때서야 뒤에 설설 와요. 그렇게 되면 뭣이 좋으냐. 미래가 좋은 겁니다. 미래가 뭐 다른 건가. 미래가 오늘이지. 내일이라도 오늘이죠. 내일이니까 미래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이라고요. 과거라고 그러지만 금방 일 초 전이 과거예요 이런 세상을 이렇게 환상처럼 살면서, 도깨비처럼 살면서 진짜 나를 찾아서 자유스럽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냥 보고 듣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그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본 게 인연이니까. 비행기에도 뭐, 저거 해서 떨어졌다 이러고 전부 난리에 죽고 그런 영가들이 누적이 되면 나라가 좋지 않아요. 세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주에도 좋지 않은 거죠, 모두가.

별성은 촛불과 같아요. 우리 생명의 촛불. 별성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때에 따라서 천도를 하러 왔다 그러면, 이거는 전자에 죄가 많으니까 이거는 천도가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거, 가난한 집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할 때는 그냥 자기 심정으로 그냥 해 줘도 된다.

또 이 공부하는 데 죄가 있고 없고 이거를 따져서 요건 이쁜 사람이고 요건 미운 사람이고, 요건 가난한 사람이고 요건 부자 사람이고 요래서 차이를 두고 차별을 두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말이지 큰 오산이다. 남한테 이익하게 해 주려면 무조건, 무조건이지, 어떻게 거기에 잘하고 못하고가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서나 이거는 잘못하고 이거는 잘하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 이 부처님 법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무주상이에요. 공심으로써 그냥 무주상 보시를 하는 겁니다. 공심으로써. 그 한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실천을 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mahamall.co.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깔박다시, 알타이공화국

러시아, 알타이공화국 깔박다시에는 중요한 암각화가 많다. 특히, 샤먼(제사장)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샤먼을 나타내는 그림이 많기도 하지만, 크기도 크고, 독특한 그림도 몇 점 있다. 더군다나, 20여명의 제사장이 한 장소에 등장하는 곳은 아마, 전 세계에서 여기가 유일할 것이다. 대개의 샤먼은 사람들의 안녕과 복을 빌기 위해, 두 팔 벌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하지만, 샤먼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재의 샤먼들을 보고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샤먼은 화려한 복장의 옷을 입고, 대개는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 분위기가 절정에 오르면 매우 격렬하게 춤을 추기도 하고, 독특한 소리를 지르거나, 하늘의 소리를 전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샤먼이 자신의 생각을 비워내지 못하면, 진실을 전달하지 못한다. 중생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사념(私念)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늘을 의지하는 마음과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해야만, 진실의 목소리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랬을까, 치렁치렁 하고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샤먼의 머리는 있는 듯, 없는 듯, 소략하게 그렸다. 하늘을 향하고, 중생을 향한 깊은 뜻으로 읽고 싶다.



제사장

비는 사람이다

춤추는 사람이다

온갖 목숨들을 위해 내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다

텅 빈 마음으로 세상 잘되라고 춤추는 사람이다

하늘 닮은 옷을 입어 하늘을 감동시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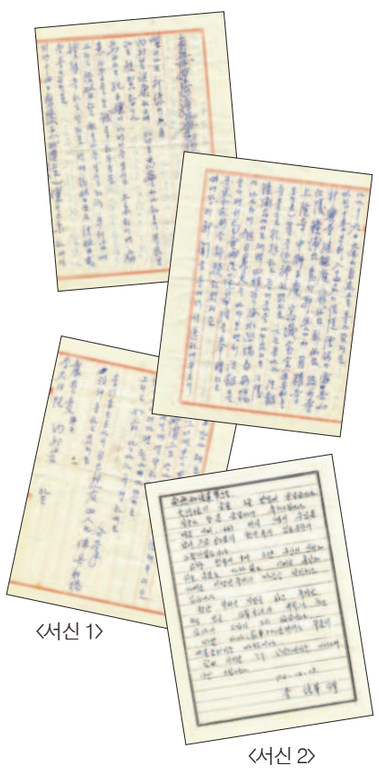
땅 만큼 넓은 옷으로 땅을 울리지만

중생 향한 간절함에 나는 끝내 없는 사람이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⑬ 이법화 스님

"스님 원 못 들어드려 죄송합니다"



〈서신 1〉 〈서신 2〉

〈서신 1〉
南無妙法蓮華經

뻗어나는 신록의 6월. 내외분 건강하오며 아기도 충실하다 하오니 무엇보다도 축하합니다. 전일에는 공자양이 아버지를 모시고 상경하시여 병환 시중을 정성으로 하더군요. 그리고 결혼할 배우자를 모시고 와서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갔지요. 언제 약혼 또는 결혼식을 올리는지요? 지난 14일 배능자(묘찬 스님 소개) 양이 상경하였다가 19일 부산 자택으로 돌아갔지요. 마침 15일부터 80명의 신도승속이 설악산 신흥사 계조암 비선대 와선대 낙산사 강릉 경포대 오죽헌 월정사 상원사 중사자암 적멸보궁(불사리를 모신 곳) 등을 순례하였지요. 가는 곳마다 법고를 울리고 예배하고 즐거움을 나누었지요. 강릉 경포대에서도 새벽 4시 반 해수욕장 백사장에 나가서 욱일승천을 바라보면서 〈나무묘법연화경〉을 봉창하고 국태민안을 소원하였지요. 여러 장의 신문을 오려서 부송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해요. 수고가 많았어요. 그러면 내내 안녕하시기를. 혹시 묘찬 스님을 만나시거든 안부 전해주세요. 명희 어머니께도 연락하세요. 다음에 내려가면 찾아가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날마다 독경하세요. 합장.

노재섭 불자 이대원성 내외분 앞. 71년 6월 20일. 이법화 합장



1967년 이법화 스님(오른쪽)과 대원성 보살.

〈서신 2〉
南無妙法蓮華經

대원성의 글을 오늘 반갑게 받았습니다. 식구가 한 분 늘었다니 축하드립니다. 나는 어제 14일 저녁 수 십분 남녀스님 신도분의 환영 속에 김포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고향 한국에 오니 오랫동안의 긴장과 피로 흥분도 가라앉고 이제는 휴식과 가벼운 여행담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처님 경전을 읽고 독경을 하는 것을 일상생활의 규칙으로 하고 있다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바쁜 가사 가운데도 꾸준히 예불 올리기를 바랍니다. 댁내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를 바라며 이만 그칩니다. 72년 12월 15일 이법화 합장

대한불교영산법화종의 개창조이신 이법화 스님은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뵙기 시작한 인연이다. 스님은 27세에 〈법화경〉에 귀의해 오랜 세월 〈법화경〉을 널리 알리는 원력으로 사셨다. 그래서 나에게도 법화종도가 되어주길 바라셨다. 나 역시 평소에 〈법화경〉을 애송했지만 이미 조계종에 이름을 적고 난 후라서 스님의 원을 들어드리지는 못했다. 스님은 아쉬우셨던지 한 동안 뵐 때마다 아쉬운 마음을 비치곤 하셨다. 끝내 내가 법화종도로 이름을 옮기지 않았지만 스님과의 인연은 달라지지 않았다. 스님과의 인연은 종단이나 종파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스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 매달 이웃의 도반들을 모아 부산에서 법회도 열어드리며 스님의 인연을 이어갔다.

스님을 뵐 수 없는 지금 가끔 스님의 인연을 떠올릴 때면 아쉬운 마음이 일어난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했지만 스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스님이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진다. "스님, 스님 원 들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서신 1〉의 묘찬 스님은 진주 응석사 비구니스님으로 평생 〈법화경〉만 번역하시고 기도하신 스님이다. 아버지 약방에 오셨던 스님 중에 유일한 비구니스님이다. 〈서신 2〉는 인도에 다녀오신 후에 보내주신 서신이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21년 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YESGOOD.CO.LTD 마하연 여행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 933호
www.mahayeon.com
문의전화 02-365-7747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1. 관세음보살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





본방송 월 13:30
재방송 월 23:00, 일 14:00



본방송 월 14:30
재방송 월 22:30, 목 14:00



본방송 화 07:30
재방송 화 16:00, 일 17:00



본방송 수 09:30
재방송 수 19:30, 토 14:30



본방송 수 11:30
재방송 수 20:00, 일 08:30



본방송 수 14:30
재방송 수 22:30, 토 09:30



본방송 목 13:30
재방송 목 23:20, 토 16:00



본방송 금 08:30
재방송 금 22:30, 일 22:00



본방송 금 09:30
재방송 금 19:30, 일 12:30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B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